

2016 청소년상담연구

#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 탈북청소년 중심으로 -

책임 연구자: 서 미

공동 연구자: 조 영 아

양 대 희

문 소 희

이 은 별

김 혜 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195**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탈북청소년 중심으로-**

인 쇄 : 2016년 12월

발 행 : 2016년 12월

발 행 인 : 권 승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094 / F. (051)662-3006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다칸

비매품

ISBN 978-89-8234-632-3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다문화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 탈북청소년 중심으로 / 책임연구자: 서미 ; 보조연구원: 조영아, 양대회, 문소희, 이은별, 김혜영.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p. ; cm

권말부록: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인터뷰 질문지 등  
참고문헌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ISBN 978-89-8234-632-3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탈북자[脫北者]

334.3-KDC6

362.7-DDC23

CIP2016029593

# 간행사

최근 북한사회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동경한 북한 주민들의 가족 단위 이탈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탈북 청소년의 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전혀 새로운 사회로 이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더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가중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탈북청소년들은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바, 이들이 학교에서 또래들과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원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8,0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되어온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 및 학교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춘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탈북청소년과 한국청소년, 그리고 탈북청소년을 지도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고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려운 시기를 거처온 탈북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 및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청소년 및 지도교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신희 교수님과 부산대학교 이기영 교수님, 그리고 이 책의 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동연구자 상지대학교 조영아 교수님과 본원의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6년 12월

이 사 장 권 승 권 승

# 초 록

1990년에 10명 남짓하던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도 3만 명에 가까운 정도로, 최근 들어 한국으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 단위 입국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이주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탈북청소년은 한국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심각한 공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남북한 문화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혼란,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자신감 저하, 탈북출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탈북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 비율은 남한청소년의 6배 이상으로, 이는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부적응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남한청소년과의 안정적인 관계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한친구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학업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래문화를 학습하는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또래친구가 중요한 지지자원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지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것은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간의 긍정적인 접촉경험은 관계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상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공감능력을 높임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함으로써 탈북청소년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하고,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및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 심층면접, 남한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근거이론 및 CQR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는 기획단계의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와 구성원리를 도출하여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 구성 시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로에 대한 문화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다음으로 탈북청소년의 남한 청소년 접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또래상담자가 탈북청소년을 돕는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을 총 4회기로 구성하였다. 1회기(‘낯섭 하나’ 회기)는 남한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 인식하기, 2회기(‘낯섭 둘’ 회기)는 탈북청소년이 갖고 있는 신분 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문화 수용성 함양하기, 3회기(‘만남’ 회기)는 탈북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주기, 4회기(‘성장’ 회기)는 탈북청소년의 강점이해 및 성장하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대상은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초안을 바탕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였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에서 활동 중인 또래상담자 51명(실험집단 25명, 통제집단 26명)을 대상으로 북한 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정서, 다문화 인식의 사전·사후검사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와 다문화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아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검사와 더불어, 회기평가 및 종합평가를 포함하는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92%의 청소년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8%의 청소년들도 ‘만족’으로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와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 인터뷰 및 전문가 감수 의견을 통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확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들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공감 및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b>I. 서 론</b>	<b>1</b>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과제	3
<b>II. 이론적 배경</b>	<b>4</b>
1.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4
가. 탈북청소년의 현황 및 정의	4
나. 탈북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5
다.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	6
2. 다문화 수용성과 접촉	6
가. 다문화 수용성과 편견	6
나. 편견과 접촉	7
3. 또래상담 프로그램	9
가.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정의 및 현황	9
나. 또래상담과 다문화 수용성	12
<b>III. 연구 방법</b>	<b>13</b>
1. 프로그램의 개발	13
가. 기획 단계	14
나. 구성 단계	72
2. 프로그램 효과검증	79
가. 연구대상	79
나. 연구설계	80
다. 측정 도구	81
라. 자료처리 및 분석	83

#### IV. 연구 결과 | 84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84
가.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	84
나.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	85
다. 다문화 인식 .....	88
2. 참가자 만족도 평가 및 심층면접 .....	89
가. 참가자 만족도 평가 .....	89
나. 참가자 심층면접 .....	91
3.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	97
4.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	98

#### V. 요약 및 논의 | 103

1. 연구 요약 .....	103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107
[부록 1]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인터뷰 질문지 .....	119
[부록 2] 탈북청소년 인터뷰 질문지 .....	122
[부록 3] 남한청소년 인터뷰 질문지 .....	125
[부록 4]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전) .....	127
[부록 5]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후) .....	130

#### 참고문헌 | 110

**부록 | 117**

[부록 1]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인터뷰 질문지 .....	119
[부록 2] 탈북청소년 인터뷰 질문지 .....	122
[부록 3] 남한청소년 인터뷰 질문지 .....	125
[부록 4]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전) .....	127
[부록 5]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후) .....	130

**Abstract | 135**



# 표목차

표 1. 심층 면접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	15
표 2. 현장 전문가가 지각하는 탈북청소년의 어려움 및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	18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	30
표 4. 면접 자료에서 도출한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 .....	34
표 5.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	65
표 6.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내용분석 .....	69
표 7.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모형 .....	75
표 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내용 ·	76
표 9.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	79
표 10. 시범운영 지도자 특성 .....	80
표 11. 연구 설계 .....	80
표 12. 측정도구 .....	81
표 13.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척도 .....	82
표 14. 다문화 인식 .....	82
표 15.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사전-사후 기술통계 분석결과 .....	84
표 16.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의 공변량 분석결과 .....	85
표 17.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사전-사후 기술통계 분석결과 .....	86
표 18.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의 공변량 분석결과 .....	88
표 19. 다문화 인식에 대한 사전-사후 기술통계 분석결과 .....	88
표 20. 다문화 인식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	89
표 21. 시범운영 참여청소년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	90
표 22.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객관식) .....	91
표 23.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	91
표 24. 심층면접 질문 내용 .....	92
표 25.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내용 ·	100

# 그림목차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 .....	13
그림 2. 패러다임 모형 .....	30
그림 3.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63
그림 4.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사전-사후 평균변화 .....	85
그림 5. 탈북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 사전-사후 평균변화 .....	86
그림 6. 탈북주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 사전-사후 평균변화 .....	87
그림 7. 탈북주민에 대한 연민 사전-사후 평균변화 .....	87
그림 8. 다문화 인식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변화 .....	89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및 정치적 억압(political repression)으로 인하여 1990년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다(유가호, 방은령, 한유진, 2004). 1990년에 10명 남짓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7년 20,000명을 넘어서서, 2014년 27,519명이 살고 있으며(통일부, 2015), 2016년 하반기에는 탈북민 3만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선아, 2016). 주목할 것은 최근에는 가족단위 입국 증가로 인한 탈북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교육부, 2014; 김경준 외, 2008). 1999년 22명에 불과했던 청소년의 수가 2013년 2,000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탈북자 중 청소년 비율은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일부, 2015; 한국교육개발원, 2012). 최근 입국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유형도 다양하여, 북한출생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 청소년과 무연고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이기영, 김민정, 조재희, 최지원, 2014).

안타까운 것은 증가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한국 적응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목숨을 건 탈북과정에서의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한국에 정착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이라는 낯선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왜소한 용모와 낮은 학업성취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되며, 북한출신이라는 사실로 인해 따돌림과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김영하, 2010; 이수연, 2008; 장문강, 2008). 이러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청소년기 발달과제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실패하게 된다(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문제는 남한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북한 억양이나 사투리가 드러날까 봐 말하는 것을 꺼리고 조심스러워 하는 등의 ‘자기숨기기’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김혜련, 2007; 이미지, 2006). 탈북청소년들의 일반학교에서의 높은 중도탈락율(이미지, 2006)은 한국학교에 탈북청소년들이 적응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신희정, 박선아, 2009; 정순미, 2010).

탈북청소년이 일반학교를 포기하는 비율은 남한학생에 비해 6배 이상이며 그 이유는 학교부 적응이 주요원인이다(이기영 외, 2014). 다수의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 학교부적응을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있어 남한친구들과의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김

미숙, 2004; 김형태, 2004; 김형태, 조순실, 2009; 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2013).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기인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학습에서 도움을 받거나 또래문화를 학습하는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러한 남한청소년과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남한청소년으로 하여금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및 인식을 갖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임으로써 남한청소년의 편견 없는 태도 형성과 고정관념을 감소시켜야 한다(맹영임, 길은배, 최현보, 2013).

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자신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하다, 촌스럽다, 측은하고 불쌍하다, 가난하고 굶주린다, 고지식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구본용, 금명자, 2000), 자신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서 거리감을 갖고 대한다(김국현, 2003).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래들과 개방적이고 솔직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왕따나 외톨이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기와 다른 문화나 그 구성원에 대해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하고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갖는 다문화 수용성(민무숙 외, 2010)을 키울 필요가 있다.

최근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접촉경험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모두의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사실 집단 간의 편견은 두 집단 간 오랫동안 접촉되지 않음으로 생긴 비친숙성과 긍정적인 접촉의 부재에서 발생한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집단 간 접촉은 상호간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개인을 집단의 특성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타집단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Eller & Abrams, 2003; Pettigrew & Tropp, 2008). 이는 탈북집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접촉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낮추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며,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전진경, 2005; 이수정, 양계민, 2013).

본 연구에서는 남한청소년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 및 공감을 통해 문화적 수용성을 증진시킴으로 탈북청소년들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나 학급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돕는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고자 한다. 2016년 전국 7,71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래상담자들은 또래 친구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하며(류부열, 2007, 박보라, 2008, 소원미, 2003) 학급 전체 분위기를 변화시킨다는 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에 비추어 탈북청소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급분위기를 변화시킴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도움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또래상담자들의 다문화적 역량은 물론, 탈북청소년들의 다문화적 역량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서의 어려움 및 문제를 이해하고 다문화수용성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서의 문제 및 과정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둘째, 남한청소년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에 대한 공감 및 문화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탈북청소년 학교적응을 돕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확정짓는다.

## II. 이론적 배경

### 1.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 가. 탈북청소년의 현황 및 정의

국내에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은 2만 명을 넘어섰다(통일부, 2014). 이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10대와 20대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의 비율이 현재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14). 입국하는 탈북청소년들은 크게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년들과 탈북자의 자녀로서 타국에서 출생한 청소년들이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북한출생 탈북청소년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기영 외, 2014). 교육부에 따르면, 북한출생 입국 탈북청소년은 2012년 1,284명, 2013년 1,182명, 2014년 1,204명으로 '12년 입국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제3국 출생 청소년은 2012년 708명, 2013년 840명, 2014년 97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층의 비율 증가는 이전과는 다른 북한이탈의 경향과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미혼 남성들이 단독으로 탈북을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김경준 외, 2008). 앞으로도 탈북청소년 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건강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남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15). 그러나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주로 선행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을 북한이탈주민 중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 혹은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 탈북청소년의 정의는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탈북청소년을 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 탈북청소년을 정의함에 있어 연구들은 청소년의 정의가 연령에 의해 정의되기 보다는 청소년의 신체·심리·사회적인 준비도와 적응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두 가지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김경미, 2014).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북한에서의 삶, 이탈과정, 정착 등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 환경 및 심리적 변화와 같은 특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길은배, 문성호, 2003). 둘째, 탈북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 후, 학업결손이 비교적 장기간 발생하여 남한의 청소년 기준과 동일선 상에서 정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20대 중·후반 시기에도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이금순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인 바 교육부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을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되,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 나. 탈북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이주민, 난민 등과 같이 모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Fantino & Colak, 2001; Schwitzer, Melville, Steel, & Lacherez, 2006). 북한이탈주민 역시 이주민, 난민 등과 유사하게 모국을 떠나 남한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양계민, 황순택, 2008;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으로 이주 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으로 출발하지만 적응과정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탈북청소년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혼란,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정애리, 2014). 특히 신체적·심리적 과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 시기는 이주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연합되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증대시킨다(Ellis, MacDonald, Lincoln & Cabral 2008; Gillock & Reyes, 1999; James, 2009). 또한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한청소년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첫째, 남한청소년과 비교하여 외형에서 나타는 왜소함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신체적 왜소함은 남한의 학생들과 경쟁적인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만든다(이향규, 2007). 둘째, 북한이탈과정에서 경험한 체포, 복송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 남한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정숙, 2009).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한 학업 능력의 차이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금순 외, 2003; 이기영, 2002; 정병호, 2005). 이러한 남한청소년과 구별되는 탈북청소년의 특성은 탈북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놓이게 하여 학교에 부적응을 야기시키고 결국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게 한다.

## 다.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

남한에 온 탈북청소년의 상당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청소년이 일반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남한청소년에 비해 6배 이상 높았고(교육부, 2009) 학교중도탈락의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주요요인이었다(이기영 외, 2014).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인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미, 2010). 탈북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원인과 관련하여 정순미(2010)는 친구관계형성의 어려움, 학습부진, 문화 및 언어적응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12; 정순미, 2010). 탈북청소년들은 학제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 등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과 소외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탈북청소년들이 학교부적응을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있어서 남한청소년들과의 안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을 강조한다(김미숙, 2004; 김형태, 2004; 김형태, 조순실, 2009; 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2013). 이는 탈북청소년들이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기로서 남한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학습에서 도움을 받거나 또래문화를 학습하는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학교에 적응하는데 남한청소년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청소년과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남한청소년으로 하여금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및 인식을 갖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임으로써 남한청소년의 편견 없는 태도 형성과 고정관념을 감소시켜야 한다(맹영임 외, 2013).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남한청소년들이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좀 더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발달시킴으로써 탈북청소년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2. 다문화 수용성과 접촉

### 가. 다문화 수용성과 편견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이다(민무숙 외, 2010).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은 문화접촉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구성원들이 문화접촉 경험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소수집단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편견 감소나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이는, 집단 간 편견이 오랫동안 접촉



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비친숙성과 긍정적 상호 접촉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집단 간에 접촉이 증가할수록 상호간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그 결과 개인을 집단의 특성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고 타 집단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게 해준다(Eller, & Abrams, 2003; Pettigrew & Tropp, 2008). 비슷하게 탈북자와의 접촉과 관련해서 접촉은 탈북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낮추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며,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양계민, 전진경, 2005; 이수정, 양계민, 2013). 이러한 접촉의 효과는 아는 사람의 수 등으로 측정하는 접촉의 양보다는 접촉하는 사람과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접촉의 질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inder et al., 2009). 비슷하게 김혜숙 외(2011)의 한국인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 구성원의 접촉 수(아는 사람의 수) 보다는 접촉빈도(만나는 횟수)가 편견을 감소하는데 영향이 미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아는 사람을 만나는 피상적인 접촉보다는 친밀한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킴을 의미하기에 질 높은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다문화 구성원에 대해 더욱 강한 편견적 태도를 갖는다(김혜숙 외, 2011)는 점에서 남한청소년들이 탈북청소년들과 질 높은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나. 편견과 접촉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 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뜻한다(김혜숙, 2002). 이러한 편견은 한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왜곡 및 비하시키기도 하며,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도 한다. 탈북청소년이 속한 소수 집단의 적응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식이다(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건, 2004).

이러한 편견은 남한청소년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도 나타난다. 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면서도 사고방식에서 이질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김국현, 2003;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남한 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열등하고 불쌍하며, 공격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 고정관념에는 자신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하다, 촌스럽다, 측은하고 불쌍하다, 가난하고 굶주린다, 고지식하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용, 금명자, 2000).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인지·정서·사회적 거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을 나타내었다(양계민, 2009).

자신이 받는 부정적 대우가 편견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안녕감 (Croker, Cornwell & Major, 1993; Major, 1994; Ruggiero & Taylor, 1995, 1997: 양계민, 2009에서 재인용), 대인관계(Kaiser & Miller, 2001), 그리고 집단갈등(Branscombe, Schmitt, & Harvey, 1999)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수집단인 탈북청소년이 자신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자존심이 저하되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체감이 약화되거나(Jost & Banaji, 1994) 반대로 사회의 부당함에 대해 비판과 불만이 커지게 되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오히려 높아지며 그에 따라 사회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구성원들이 겪는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응하지 못하고 차이에 대한 인식 및 다양성의 인정보다는 단일민족의식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한편 탈북청소년 또한 남한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은 대체로 남한 청소년을 자신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교적이라고 보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김국현, 2003). 남한청소년의 장점으로는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온순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적응력이 높다고 평가했다(최현, 김지영, 1993). 반면에 남한청소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분석 연구에 따르면 ‘남한청소년은 날라리 같은 애들이 많다, 의리가 없다, 이기주의적이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이용한다, 버릇이 없다, 여학생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남자에게 막 대한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2002). 또한 남한청소년의 단점으로는 ‘솔직하지 못하며, 자기 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나태하다’고 평가했다(최현, 김지영, 1993).

이러한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상호 집단에 대해서 편견은 질 높은 접촉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질 높은 접촉으로 편견이 감소되기도 하지만 편견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접촉이 증가하기도 한다는 점과 접촉으로 인한 편견감소의 효과가 소수집단 보다는 다수집단에 효과적이라는 점(Binder et al., 2009; Pettigrew & Tropp, 2006)을 고려할 때, 탈북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접촉을 위해서 남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남한청소년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감소시켜 탈북청소년들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도움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이 감소되고 그들과 긍정적인 접촉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나 학급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돕는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고자 한다.

### 3. 또래상담 프로그램

#### 가.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정의 및 현황

##### 1) 또래상담의 정의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이라는 용어는 1969년 Vriend가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과 또래들의 상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Varenhorst, 1984). 현재까지 또래상담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또래 조력자(peer helper), 또래 조정자(peer mediator), 또래 후견자(peer tutor), 또래 촉진자(peer facilitator) 등 30여 가지의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Carr, 1993).

학자별 또래상담 정의를 살펴보면, Lombardi와 Carek(1978)은 ‘연령 차이가 3세 이내인 또래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교 적응문제, 직업문제, 개인문제 등에 관하여 도와주는 것’이라고 또래상담을 정의한다. 나아가, Cowie와 Smith(2010)는 ‘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곤궁에 처한 또래에게 정서적·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국내에서는 연문희와 강진령(2002)이 또래상담을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기 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2004)은 ‘상담훈련을 받은 학생이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공감과 경청을 통해 상담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또래상담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또래상담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또래들의 문제해결을 돕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구분용, 구혜영, 이명우(1994)는 또래상담자를 ‘또래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또래들’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지선과 조한익(2014)은 또래상담자를 경청 등 상담 훈련을 통해서 또래 친구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 후 또래 친구가 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심리·행동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하는 청소년 상담자라 정의하였다.

##### 2)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현황

대표적인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다. 이는 1994년에 개발된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외의 또래상담 프로그램과는 달리 국책연구과제로 개발되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로 보급되고 있다.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1차 상담서비스를 강조한 준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고, 이후 2002년까지 또래상담자의 기본역할 규정, 또래상담자의 학교활성화 방안 모색기 및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별 또래상담 방안 탐색기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확립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또래상담자 정신 확립 및 연합활동 강조기로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세분화되고 현장의 소리에 부응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또래상담 홈페이지, 2016). 이 과정에서 초기에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외에 초등학교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 또래상담자 심화훈련 프로그램(2003)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군솔리언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되던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군부대로 확대 보급되었다(김미정 외, 2015).

2012년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부처연계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4년까지 3년간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보급 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 4,638개교에서 운영되던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2014년에 6,396개교에서 운영되었으며, 또래상담자 역시 60,681명에서 104,650명으로 증가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a). 이후 2015년에는 전국6,732개교가 또래상담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58.4%가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b).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이러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전국적인 확대와 더불어 더욱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3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솔리언또래상담 기본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을 제시하였다(양미진 외, 2013). 또한 2014년에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서미 외, 2014)’이 개발되었으며, 2015년에는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김미정 외, 2015)’을 개발하였다. 이렇듯 청소년의 문제유형에 초점화 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또래상담자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또래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

또래상담 내담자, 학급 및 학교의 차원에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진 외, 2013).

먼저,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자 훈련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인간관계 및 교우관계에서의 성장을 보였으며, 공감능력과 사회성 및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류부열, 2007; 박보라, 2008; 소원미, 2003). 이는 또래상담자가 또래상담자 훈련을 통해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공감과 경청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래상담자로서 활동함으로써 리더십이 함양되며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이상희, 이지은, 노성덕, 2000). 더불어 또래상담자는 개인적인 성장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향하(2004)는 고등학생 또래상담자의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또래상담자들이 또래상담자로서의 활동으로 자신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적극성과 활동성을 발달시켰다고 하였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한 또래상담자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결과를 보였다(전선숙, 2010; 채연희, 이현림, 2003). 또래상담 내담자 역시 또래상담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임과 주은선(2006)은 따돌림 피해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에 또래상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또래상담을 통하여 따돌림 피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및 신뢰감과 만족감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정미혜와 김종훈(2008)은 또래상담자의 정서적, 사회적지지 및 상호작용을 통해 배척아동의 신뢰감과 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교우관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또래상담자의 활동은 또래상담자와 내담자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학급·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지선, 조한익, 2014). 최혜숙(2006)에 따르면 또래상담자가 지지적인 교우관계 및 공감적인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여 학급응집력을 높이고 학급원의 생활태도와 학급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또래상담자 배치 및 미배치 학급의 비교를 통한 또래상담 효과성을 분석하였을 때, 또래상담자 배치 학급의 학년말 학교생활만족도, 방관하지 않는 태도, 또래지지, 배려에 대한 점수가 학년 초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배치 학급의 점수 변화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b). 이는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학급 친구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학급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들이 또래내담자 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 분위기를 변화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또래상담자들이 탈북청소년을 상담하고 학급분위기를 변화시킴으로써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 나. 또래상담과 다문화 수용성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Rogers의 인간중심 이론에 기초하여 또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친한 친구되기,’ 경청과 공감을 통해 친구의 고민을 듣고 효율적으로 대화하는 ‘대화하는 친구되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의 어려움을 알아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도움주는 친구되기’의 총 세단계로 이루어져있다(서미 외, 2014). 또래상담자의 세 가지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14년도에 해외교포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집단에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친한 친구되기 (Friendship) 단계에서 다른 교포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대화하는 친구되기(Counselorship) 단계에서는 공감과 경청을 위한 대화기법을 비롯하여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부모와의 갈등, 학업 문제로 인한 부담감, 정체성 문제 등 교포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익힌다. 마지막으로 도움주는 친구 되는 (Leadership) 단계에서는 또래상담자 자신이 교포 청소년으로서 다문화 경험을 통해 어떠한 역량과 자질이 개발되었는지 생각해봄으로써 다문화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 ‘심리적 문제 이해 및 대화기술 습득’, ‘다문화적 유능감 및 상담기법 습득’이라는 세 가지의 하위 목표를 수립하여 교포 청소년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조력하는데 있어 또래상담자의 다문화적 유능감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서미 외, 2014).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시범운영을 통해 다문화 유능감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David, Okazaki와 Saw(2009)가 개발한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BSES)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포 청소년들은 자신이 다문화 집단에 속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집단 내에서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에 대한 유능감이 향상되었다(서미 외, 2014).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신을진, 김창대, 김형수, 이상희, 최한나(2011)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과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2008)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개발 범위를 기획 및 구성, 시범운영을 실행하고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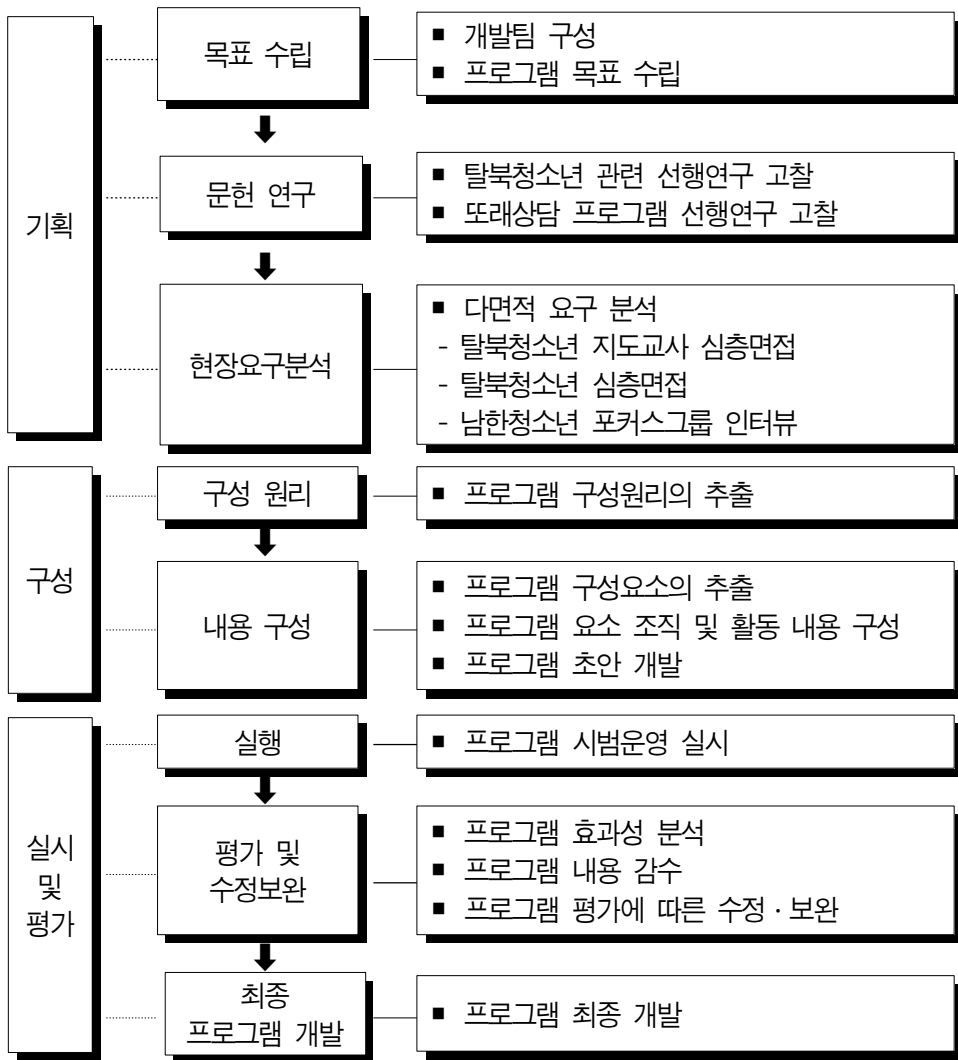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

## 가. 기획 단계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위의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문제 등 부적응 문제, 탈북청소년의 문화수용성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성을 연구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탐색한다.

둘째, 탈북청소년에 적합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인터뷰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교사 대상 심층면접, 탈북청소년과 접촉경험이 있는 남한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주로 보급하는 곳이 일반 중·고등학교임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 및 교사는 제외하였다. 인터뷰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질적연구 분야 전문가에게 감수 받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를 추출하고, 그 내용을 구성한다.

넷째, 프로그램 지도자 지침서 및 웹교재, 학생용 워크시트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추출된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초안을 만들고,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으로 구성된 3 집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회기별 평가 및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내용과 효과성 검증결과, 전문가의 감수 및 지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다.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프로그램은 지도자용 지침서 및 청소년용 웹교재와 워크시트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1)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탈북청소년의 현황,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등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 및 문화수용성, 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등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문화적응을 돕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방향 탐색하고자 하였다.

앞선 문헌연구 검토결과,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적응과정 및 문화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간 편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이 상호 집단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문화를 상호 이해하는 다문화 수용성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접촉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간의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깊은 공감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탈북청소년과 남



한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또래상담자들은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문제 및 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함으로써 학교 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현장요구분석 I: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심층면접 조사 결과

### 가) 조사 목적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일반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을 지도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의 문제, 탈북청소년의 문화수용성 강화를 위한 지도 방안,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간의 접촉과정,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방향 등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 참가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보급방안에 대한 구성요소 추출과 실행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 나) 면접 참여자

본 연구는 지도교사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탈북청소년을 직접 지도한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둘째 정규학교에서 교사나 탈북청소년 지도자로 근무하는 자, 셋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대상자는 탈북지원 단체를 통한 추천 및 공문을 통한 자원자 모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5명은 일반교사이며, 2명은 탈북코디네이터였다. 탈북코디네이터는 탈북출신으로 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교사들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심층 면접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대상자	성별	연령	학력	학교급	직위	지도 경력	주로 지도한 청소년 연령대
전문가A	여	50대	학사졸업	중학교	교사	3~4년	중학생
전문가B	여	40대	석사졸업	중학교	교사	2~3년	중학생
전문가C	남	50대	석사졸업	중학교	교사	5년 이상	중학생

대상자	성별	연령	학력	학교급	직위	지도 경력	주로 지도한 청소년 연령대
전문가D	여	30대	석사졸업	고등학교	교사	1년 미만	고등학생
전문가E	여	50대	학사졸업	초등학교	탈북 코디네이터	4~5년	초등학생
전문가F	남	30대	석사졸업	초등학교	탈북 코디네이터	3~4년	초등학생
전문가G	여	50대	학사졸업	중학교	교사	3~4년	중학생
전문가H	남	30대	학사졸업	중학교	탈북 코디네이터	1~2년	중학생
전문가I	남	30대	석사졸업	고등학교	교사	1년 미만	고등학생
전문가J	여	30대	학사졸업	중학교	교사	3~4년	중학생
전문가K	남	40대	박사이상	고등학교	교사	5년 이상	고등학생
전문가L	남	40대	석사졸업	고등학교	교사	3~4년	고등학생

#### 다) 심층면접 질문지의 구성

심층면접 질문지는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담을 전공한 박사 2인, 박사수료 1인, 석사졸업 3인이 참여하여 구성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다.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선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정 대상자의 지도경력 연한, 근무 학교급, 근무학교 형태(일반학교 및 대안학교 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합의된 탈북청소년 지도교사의 배경에 대해 분류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셋째,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를 거쳐 반구조화 면접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넷째, 연구개발진의 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최종 면접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질문내용은 탈북청소년의 문제유형, 지도방안,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간의 접촉과정,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문형태는 도입질문(opening question), 주요질문(key question), 마무리질문(ending question)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라) 자료 수집 과정

지도교사 심층면접은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서울소재 4개교, 경기 2개교, 창원 1개교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모든 심층면접 전에는 면접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접 내용은 녹음이 되며, 추후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탈북청소년들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그들을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한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주로 지도한 탈북청소년과 관련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문제해결방법,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보급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보급 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심층면접의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모든 심층면접에서는 질문지의 맥락을 지키되, 질문지 내용 이외의 반응에 대해 허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진행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등의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는 전사본을 작성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 마) 심층면접 내용 분석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과정에서는 전사된 축어록과 현장노트가 활용되었으며, 각각의 자료는 4명의 연구팀이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 각자가 현장 전문가 개인별로 1차 분석을 하여 의미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축어록의 진술 문장을 그대로 옮겨와 범주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분석 모임 이후에는 나왔던 범주 이름을 취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로 재범주화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차 분석모임에서 보고하고 합의에 의해 수정하였다. 한편,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는 상담 및 질적 분석가 3인의 감수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 바) 분석 결과의 요약

심층면접 분석결과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크게 ‘탈북청소년의 적응에서의 어려움’,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 ‘탈북청소년 지도방안’,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탈북청소년의 적응에서의 어려움은 가정문제, 문화적응문제, 학교생활 적응문제 그리고 탈북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였다. 다음으로 현장전문가들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며,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및 효과적인 지도방안과 현재 실행중이거나 진행 경험이 있는 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장전문가들이 관찰한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는 지도자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의견이 있었으며,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안으로는 또래친구가 탈북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또래상담자의 역할, 프로그램 내용, 형식 및 형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현장 전문가가 지각하는 탈북청소년의 어려움 및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대범주	소범주	의미단위	빈도
탈북청소년의 적응에서의 어려움	가정문제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부족	5
		부모의 정서·사회적 지원 부재	6
		불안한 가정환경	2
	문화적응문제	정체성 혼란	4
		자유로운 삶에 대한 혼란	3
		언어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5
		급변하는 남한사회에 대한 불안감	2
	학교생활 적응문제	낮은 학업성취	9
		따돌림	3
		편견으로 인한 위축	6
		학교의 지원 부족	1
		또래와 관계형성 문제	5
		교사와의 갈등	1
		신분노출 두려움으로 인한 비행행동	1
	탈북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자해행동	1
		불안 및 공포	4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	강점	강인성
예의바름(성실성)			5
단점		표현능력 부족	3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	1
탈북청소년 지도방안	지도 시 어려움	부모와 소통의 어려움	2
		신분노출에 대한 조심스러움	6
		찾은 담당자 변경	2
		전담인력 부족	3
		라포형성의 어려움	2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2
		기초학력의 부족	1
	교육내용	정보제공	1
		대인관계 교육	1
	탈북청소년 지도방안	교육내용	문화이해 교육
한국어 교육			2
(문화)체험 교육			5
일반 교과목 교육			3
지도자의 문화수용성			2

대범주	소범주	의미단위	빈도
탈북청소년 지도방안	효과적인 지도방안	강화물 제공	2
		맞춤형 지도	2
		교사의 지지	3
		통합교육	1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	탈북청소년의 변화	남한청소년의 긍정적 문화 동화	4
		남한청소년의 부정적 모습 학습	3
	남한청소년의 변화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감소	3
		탈북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강화	1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또래친구가 탈북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또래 문화에 동조	2
		학교적응 지지자원	1
	또래상담자의 역할	교사 연계	1
		정서적 지지	3
		다가가기	5
		조언 및 멘토링	3
		학습지원	2
	프로그램 내용	자기표현 훈련	1
		함께하는 체험활동	7
		성교육	1
		봉사활동	2
		문화이해교육	3
		또래관계 형성방법	1
		정서적 지원	2
	형식 및 형태	지도자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1
		학급단위	2
		신분노출이 자유로운 외부기관 활용	2
		남한 학생들과 통합교육	7
		방과 후, 방학 때 진행	1
		멘토 멘티제 활용(1:1)	2
대상별 맞춤형 교육		3	

### ① 탈북청소년의 적응에서의 어려움

현장지도자들이 인식한 탈북청소년의 적응에서의 어려움은 ‘가정문제’, ‘문화적응문제’, ‘학교 생활적응문제’, ‘탈북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부분은 학교생활 적응문제였는데, 그 중에서도 낮은 학업성취였다. 북한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

는 탈북청소년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한과 다른 교육 과정으로 인해 학업 성적이 남한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위축, 또래와의 관계형성 문제, 따돌림이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의 지원 부족,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인해 비행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문화적응문제도 탈북청소년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보고되었는데 정체성 혼란과 언어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이 주로 나타나는 문제였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이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를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북한 출신의 부모 밑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중국 사람인지, 북한 또는 남한 사람인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언어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고 외래어 사용 등으로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자유로운 삶에 대한 혼란, 급변하는 남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되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특징 때문에 정서적·사회적으로 지원을 잘 하지 못하며, 물질적 지원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불안한 가정환경이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탈북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자해행동 또는 불안 및 공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정착과정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기초학력이 제일 부족하구요. 오는 과정에서 배우질 못해서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있고.” (낮은 학업성취, 지도교사F)*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가끔씩 천안함 사건이라던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너는 북한에서 왔잖아.’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압이 되고 위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학교에 오기 싫고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에 가면 나라는 존재가 작아지고 나는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편견으로 인한 위축, 지도교사E)*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 사회가 소수자, 약자를 탄압하는 분위기, 따돌리는 분위기여서 그런 게 좀 힘들어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따돌림, 지도교사C)*

“내가 과연 한국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북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분간하기를 힘들어 하는 거죠. 중간에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한국 체제가 너는 탈북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딱지, 한국 애들하고 분리지어서 하는, 이런 데서 혼동을 많이 가지는 거죠.” (정체성 혼란, 지도교사E)

“표현을 못하니까, 말투 때문에 일단 많이 애들이 누그러드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밝던 애들도 말투가 딱 티가 나니까 최대한 말 안하러그리고” (언어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지도교사D)

“온전한 직장이 많이 없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전문직이 아니다보면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다보니까 자녀한테도 충분한 행복,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못주는 게 약점인 것 같아요.”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부족, 지도교사G)

“(부모가) 하루하루 살고, 멀리 안보고 많이 고민하지 않고. 아이도 큰 꿈은 못 꾸죠, 큰 그림이나 큰 꿈은 못 꾸고 그냥 포기하고. 남한 애들보다 더 크게 가려고 그러는 걸 막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못해주시니까 부모가. 그냥 다 일하라고,, 빨리 취직하라고. 대학 가고 싶는데 집에서 조금 못 가게...” (부모의 정서·사회적 지원 부재, 지도교사D)

“부모님들이 문제예요. 학교에서는 즐거워도 집에 가면 부모님이 싸운다던지. 사실 부부로서 사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이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북한의 아버님들께서는 좀 많이 과격하시도 해야 하나? 아이도 많이 때리고” (불안한 가정환경, 지도교사G)

“(탈북) 과정에서 받았던, 자기가 보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보면서 부모하고 같은 상처를 겪다보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누적이 돼서 여기 와서 그게 쌓였던 것이 폭발하고...” (불안 및 공포, 지도교사E)

## ②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

현장전문가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은 강점과 단점으로 분류되었는데, 강점의 경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강인성이었다. 탈북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생활력이 강하고 인내심과 끈기가 있으며 성실하고 불평불만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탈북 과정에서의 힘든 경험을 견뎌냈기 때문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도 탈북청소년들은 순수하고 예의가 바르며 교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반대로 탈북청소년의 단점으로는 표현능력 부족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나타났다. 북한 말투를 의식하여 말을 잘 하지 않고 소극적이 되고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칭찬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신체적 왜소함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요즘 애들이 끈기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애들에 비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이나 끈기, 성실성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참는 거, 단순하게 날씨 같은 거에도, 여기 애들은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더우면 덥다고 난린데,, 개들은 태연해요.” (강인성, 지도교사D)

“강하죠. 애들이 일단 강해요. 확실히 정신적으로 남한 애들보다 강해요. (강인성, 지도교사K)

“일단 걸로 보이는 자세, 준비 하는거, 학습을 준비 한다던가 지각을 안 한다던가, 눈치를 보면서 딱.” (예의바름(성실성), 지도교사D)

“생활력이 강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자신이 할 일을 바로바로 하는 것. 자기할 일 척척 알아서 하고. 옷도 제자리에 딱딱 놓고.” (성실함, 지도교사H)

“탈북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가 칭찬을 못해요. 아무에게도. 칭찬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표현능력 부족, 지도교사A)

### ③ 탈북청소년 지도방안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지도교사들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인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대부분의 지도교사가 보고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부모와 소통이 어려움, 잦은 담당자의 변경, 전담인력의 부족, 라포형성의 어려움,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초학력의 부족을 보고하였다.

탈북청소년을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문화이해 교육, 문화 체험 교육과 같은 남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생활과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제공, 대인관계 교육,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교과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한 탈북청소년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문화수용성 증진교육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탈북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강화물을 제공하고, 탈북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생님이 부를 때는 탈북학생, 일반학생 부르면 안 되거든요, 같은 몇 학년 몇 반 친구지? 자 그러면 오늘 이리이러하게 해야겠다. 탈북이니까 일반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되거든요. 벌써 경계를 가지고 대하면 아이들도 경계를 갖고 대하거든요”(지도시 어려움, 지도교사F)

“1대1로 멘토를 해서 정말 우리도 너의 문화를 조금 알자. 서로가 공유하는 게 제일 필요하죠.”(교육내용, 지도교사G)

“아이들이 어떠한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한거죠. 실제적으로..(효과적인 지도방안, 지도교사C)

“문화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극장도 데리고 가고 뮤지컬도 보고 아니면 고궁이나 쇼핑센터 같은 곳도 가보고 맛집도 찾아가보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면서 같이 경험해보고 그랬죠.”(문화체험 교육, 지도교사J)

#### ④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은 접촉 과정에서 양쪽 모두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탈북청소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남한청소년과의 접촉 과정에서 남한청소년의 긍정적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고, 부정적 모습을 학습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에 정착해서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가가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러 부분에서 남한청소년을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청소년의 경우, 접촉하게 되는 탈북청소년에 따라 탈북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탈북청소년과의 접촉을 통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남한청소년 중) 제대로 된 아이들을 만나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걸 배우고, 일단은 여기에서 생활하고 이런 생활이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인식과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인식을 주는가 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데서 어른스러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데...” (남한청소년의 긍정적 문화 동화, 지도교사E)

“어쨌든 만나서 생활하는 과정에 학생들은 나쁜 것부터 배우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걸 이상하게 하고, 말도 처음에는 아이들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별 못하고 따라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여기 아이들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틀린 행동을 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게 맞는 행동인줄 알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하지만 아이들이 안 좋은 것부터 배우더라고요.” (남한청소년의 부정적 모습 학습, 지도교사F)

“탈북 애들을 대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했었는데, 탈북아이들을 자주 만나고 프로그램이라던가, 활동들을 많이 하고, 탈북 애들을 통해서 탈북청소년들이 통일 교육을 하는데 가서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더욱 잘 알아가게 되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수용성?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이해? 자기가 서로 만나고 접촉하는 탈북청소년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빨리 이해를 하고 알아가는 과정...”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감소, 지도교사E)

## ⑤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지도교사의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또래친구가 탈북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또래상담자의 역할,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형식 및 형태로 범주가 구분되었다.

### ⑤-1. 또래친구가 탈북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사들은 또래친구가 탈북청소년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남한의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남한청소년의 또래문화에 동조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한의 또래친구들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있어 지지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게임이 또래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지니까, 탈북학생들도 적응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이랑 놀면 어쨌든 아이들이랑 친해지려

면 봐야 되잖아요,(지도교사F)

“다가와주는 애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긍정적으로 봐주는 애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많이 긍정적이죠. 중요하죠.(지도교사D)

## ⑤-2. 또래상담자의 역할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자의 역할로는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을 교사에게 연계하는 활동,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의 정서적지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에게 먼저 다가가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및 멘토링,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선생님께 데려올 수도 있고...”(교사연계, 지도교사G)

“가정적인 환경이 탈북 학부모 슬하에서 생활을 하고 훈육을 받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심리적으로 탈북학부모가 안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고, 아이들을 북한식으로 훈육을 하다보니까 아이들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한국출생 아이들과 지원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면 좋겠습니다”(정서적 지지, 지도교사E)

“제일 좋은 건 가까이 가주는 거거든요. 관계 맺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친구 되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며가며 만나고 같이 있어 주는 거 그게 답인 것 같아요”(다가가기, 지도교사A)

“탈북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험을 말해주는 거겠죠, 제일 그건 정말 실질적인 경험을 말해주겠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랬다 이런 실질적인 경험으로 하니까 공감이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남한 친구들이야 남한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는 거? 남한은 이렇다, 여기는 이렇다, 팁을 주는거죠, 여기적용하려면 여기 문화는 이래, 알려주는 거, 여기 친구들은 좀 이래 (조언 및 멘토링, 지도교사D)

“학습공백, 부진한 부분을 채우는 영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고”(학습지

원, 지도교사E)

### ⑤-3 프로그램 내용

지도교사들은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취약한 자기 표현 훈련과 관련된 내용,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봉사활동, 문화이해교육, 또래관계 형성방법, 정서적 지원 내용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자기표현 훈련, 지도교사G)

“활동이 제공되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함께하는 체험활동, 지도교사H)

“성교육도 조금은 역할극 이라던지, 그런 거도 조금 해야 하지 않을까, 아예 성을 잘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성교육, 지도교사G)

“상대방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나눔과 베품을 아는 프로그램?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봉사활동, 지도교사E)

“좀 북한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한아이들이 흥미로울 수도 있잖아요. 남한아이들이 흥미로워하고 그렇게 되면서, 탈북 애들도 좀 자기 이야기 할 거리가 있으니까 다가가기 쉽고, 그런 걸로 형성을 하는 거겠죠 일반과 탈북.”(문화이해 교육, 지도교사D)

“또래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거? 또래 사이를 어떻게, 뛰어 가는지, 워낙 다르니까, 실례로 영화도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또래관계 형성방법, 지도교사D)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정서적 지원, 지도교사E)

#### ⑤-4. 형식 및 형태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상의 형식으로는 남한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도자 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내용의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는 학교의 학급단위 형태, 1:1 멘토-멘티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신분노출이 자유로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한 선정, 이것이 올바른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탈북 학생과 탈북가정에 대한 이해, 이해교육을 담당자들이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 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 지도교사E)

“인원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학급단위 운영, 지도교사G)

“교외에서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교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낙인 때문에 그러는데.”(신분노출이 자유로운 외부기관 활용, 지도교사C)

“탈북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남한 학생들과 통합교육, 지도교사E)

“애네들이 남한 아이들보다 시간이 많아요. 부모님이 늦게 오니까. 근데 전혀 케어해줄 게 없어요. 학교 바깥에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방학 때. 애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니까.”(방과 후, 방학 때 진행, 지도교사A)

“1:1 또래를 매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시작하지는 말고, 깨비밀도 지켜줘야 하고.”(멘토-멘티제 활용, 지도교사A)

“비슷한 연령대. 학년이 다른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상급생이 저학년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요.”(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도교사H)

### 3) 현장요구분석 II : 탈북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분석 결과(근거이론)

#### 가) 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특히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반적 문헌연구를 통해서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와 정체성에 대한 스트레스 등 전반적인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추출되었지만 학교에서 남한청소년들과의 접촉 경험에 초점화 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학교 또래와의 관계에 가장 영향을 받는 바,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남한청소년과의 접촉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는 남한청소년과의 긍정적 접촉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근거이론을 활용한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나) 근거이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현장의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어떤 현상을 귀납적으로 이끌어 내어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1967년 사회학자인 글라셔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에 의해 개발되었다. 근거이론은 기존의 이론이나 이미 정의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수집한 인터뷰 자료, 현장노트, 책이나 저널 또는 비디오, 문서 등과 같은 자료들을 코딩하고 분석함으로써 개념과 속성을 얻어낸다(Glaser & Strauss, 1967). 이와 같이 근거이론은 자료에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력을 제공하며, 이해를 강화하고, 행동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해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와 자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정 수준의 엄격함을 유지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면서 연구자의 창의적 능력으로 적절한 범주를 명명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설문과 비교를 한다. 그러므로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방법, 코딩, 메모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거이론은 어떤 현상에 적합한 개념들이 아직 정의되지 않고 개념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들이나 비록

기존이론이 있으나 수정되거나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들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 하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에 의한다. 이론적 표본추출이란 연구자가 개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개념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차원이나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다. 표본추출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가면서 현상에 대해 더 목적 지향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며 모든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된다. 처음 표본추출에서는 연구자가 가능한 한 많은 범주를 만들어 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표본추출은 자료를 수집하고 일단 몇 개의 범주를 얻게 되면 이런 범주를 발전시키고, 범주의 밀도를 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근거이론의 주된 분석방법은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한다. 지속적 비교방법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가면서 새로 출현한 개념들과 이전에 나온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고 범주를 보강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까지 계속된다.

셋째, 근거이론의 기본적 분석과정은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개방적 코딩은 자료 안에서 개념을 밝히면서 그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이며, 중추적 코딩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분석과정이다. 선택적 코딩은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개방적 코딩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범주와 속성 등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중추적 코딩은 범주와 하위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데 관심을 가지는데, 개방적 코딩에서 이루어진 범주와 하위범주들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넷째, 근거이론 분석의 결과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이 제시된다. 이는 이론 구축의 축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범주에 하위범주를 관련짓는 과정으로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를 동시에 포함시킨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맥락(context),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로 구성되어 있다. 인과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한다. 현상은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말한다. 맥락은 사람들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며, 중재적 조건은 우연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면서 변화시키는 조건들이고, 작용/상호작용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참여자들의 의도적인 행위나 반응이다.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Strauss & Corbi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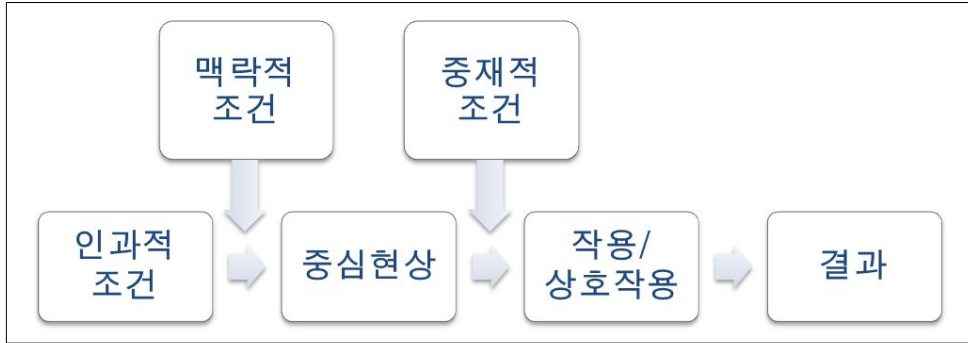


그림 2. 패러다임 모형

#### 다) 인터뷰 참여자

근거이론에서는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 하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탈북청소년으로서, 한국에서 1년 이상 일반학교를 다닌 중·고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일반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자, 현재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 하나센터 및 전국 또래상담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발송한 인터뷰 협조 요청 메일을 통해 모집된 16명의 탈북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출생지	대상자	성별	연령 (학년)	부 국가	모 국가	한국 거주기간	체류 경험 국가	한국 학교 입학 시기	북한문화, 언어이해
북한	청소년 A	여	16(중2)	북한	북한	3년 6개월	중국	초4	조금 안다
	청소년 B	여	19(고1)	북한	북한	5년	중국, 태국, 라오스	초6	매우 잘 안다
	청소년 C	여	20(고3)	한국	북한	5년	없음	중3	보통이다
	청소년 D	남	20(고3)	중국	북한	6년	중국	중1	전혀 모른다
	청소년 J	남	20(고3)	중국	북한	4년	중국	중2	조금 안다



출생지	대상자	성별	연령 (학년)	부 국가	모 국가	한국 거주기간	체류 경험 국가	한국 학교 입학 시기	북한문화, 언어이해
북한	청소년 K	여	17(고1)	북한	북한	2년	중국, 태국, 라오스	중1	매우 잘 안다
	청소년 L	남	15(중1)	북한	북한	5년	중국, 방콕	초3	잘 안다
	청소년 M	여	21(고3)	북한	북한	9년	없음	초4	매우 잘 안다
	청소년 N	여	21(고3)	북한	북한	8년	없음	초5	잘 안다
	청소년 P	남	17(중3)	북한	북한	4년	없음	중1	잘 안다
중국	청소년 D	여	19(고2)	중국	북한	7년	중국	초4	전혀 모른다
	청소년 E	여	15(중1)	중국	한국	3년	중국	초3	전혀 모른다
	청소년 F	여	15(중1)	중국	북한	6년	중국	초1	매우 잘 안다
	청소년 G	남	18(고1)	중국	북한	7년	중국	초2	전혀 모른다
	청소년 H	여	18(중3)	중국	북한	4년	중국	초6	전혀 모른다
	청소년 O	여	18(고2)	중국	북한	12년	중국	초1	조금 안다

## 라) 면접 질문지의 구성

심층면접 질문지는 다수의 질적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학 박사 2인, 박사수료 1명과 상담학 석사 3인이 참여하여 구성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다. 면접질문지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과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용어 사용의 합의를 위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합의된 연구과제의 개념과 일치된 용어를 활용해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 남한청소년과의 접촉과정 등 연구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 후, 반구조화 된 질문형태를 구성하였으며, 질문목록을 연구개발진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최종 면접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질문내용은 한국학교에서의 경험, 남한친구와의 접촉 경험,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친구들과의 접촉경험, 또래상담 프로그램 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문형태는 도입질문(opening question), 주요질문(key question), 마무리질문(ending question)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마) 자료 수집 과정

심층면접은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모든 집단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인터뷰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면접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비밀 유지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각 인터뷰에서는 질문지의 맥락을 충실히 따르되 질문지 내용 이상의 반응에 대해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맥락에 따른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등 반구조화 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 및 전사한다.

## 바) 심층면접 자료 분석

면접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으며, ‘비교하기’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비교하기’는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대조·분류하는 작업이다. 연구자들은 한 연구대상자의 면접 자료에서 도출한 개념을 놓고 다른 연구대상자들로부터 도출된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연관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해 나갔다. 전체 자료 분석 과정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 (1) 자료분석 1단계: 축어록 작성

녹음된 모든 면접내용을 그대로 풀어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축어록을 작성할 때 연구대상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였으며, 인터뷰 중간에 연구대상자가 보인 정서표현이나 비언어적 특이 사항 등은 괄호로 처리하여 기록하였다. 연구자들은 축어록을 읽으면서 문맥이 이상한 곳은 다시 음성파일을 들으며 확인하여 보강하였다.

### (2) 자료분석 2단계: 범주분석, 접촉과정 분석

접촉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축어록→개념(concept)분석→하위범주(subcategory) 분석→범주(category)분석→패러다임분석(paradigm analysis)’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축어록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주요 단어와 구, 문장에 밑줄을 긋고 유사한 단어와 구, 문장과의 동질성과 차이를 구분하면서 개념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을 실시 한 후 개념들을 다시 범주화하는 축코딩을 실시하고, 하위범주 및 범주분석 결과로 패러다임 모형을 완성하였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실시한 후 타당하게 개념과 범주가 정하여졌는지를 검증받기 위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 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근거이론에서 제안하는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등의 기준을 따랐다(Glaser, Strauss, 2010; Guba & Lincoln, 1981; Strauss, Corbin, 1998).

### (1)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참여자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얼마나 믿을만한 사실을 발견 하였는가’이며, 신빙성(credibility)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많은 탈북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론적 표본추출을 시도하였고, 보다 사실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지도교사와 면담을 하여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맥락 외의 다른 맥락과 다른 대상들에게도 적합한가, 그리고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그들 자신의 경험세계에서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이며, 융통성(transfera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직접 보여주고 과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 (3) 일관성(consistency)

양적연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가 동일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관성이라는 용어보다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보다는 오히려 경험의 다양성이 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한 연구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고,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노력하였고,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이면서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대학 교수 1인과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이면서 근거이론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대학 교수 1인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등 연구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아) 탈북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분석

### (1) 면접자료의 범주분석

면접을 통해 얻은 축어록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개념을 명명하고, 이 개념을 범주화한 후 비교와 대조를 통해 수정·보완해가면서 최종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였다. 총 60개의 개념과 26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개념을 명명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이면서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대학 교수 1인과 상담심리사 1급 소지자이면서 근거이론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대학 교수 1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결과를 반영하였다.

표 4. 면접 자료에서 도출한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원치 않는 탈북을 하게 됨	의도치 않은 탈북	남한입국	인과적 조건
가족 재결합을 위해서 남한에 오게 됨	목적 있는 남한입국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됨			
북한출신임을 숨김	노출을 피함	북한출신	
어쩔 수 없이 북한출신임을 공개함	출신이 노출됨		
북한출신임이 의도치 않게 알려짐			
선생님이 북한출신임을 공개함	남한학교로 옮김	남한학교 진학	
탈북으로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게 됨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일반학교로 전학하게 됨			
탈북에 대해 죄책감을 느낌	탈북 후유증	심리적 어려움	맥락적 조건
탈북과정에서 극심한 위험을 겪음			
북한과 중국친구에 대한 그리움			
심리적 위축	위축감		
키가 작음			
진로고민이 큼	진로고민		
남북한의 학제가 다름	남북한 교육의 차이	학교 적응의 어려움	
교육 내용이 다름			
수업방식이 다름			
북에서 학교 경험이 없음	학업능력의 부족		
학년을 낮춰서 들어감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학습능력이 떨어짐	학습능력의 부족	학교 적응의 어려움	맥락적 조건
남북한의 언어차이로 힘들	언어차이		
남북한의 또래문화와 생활방식이 다름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		
남한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남한과 남한친구들에 대한 편견이 있음	부정적 편견	편견과 차별	
북한출신에 대해 안 좋게 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북한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음			
무시와 차별을 받음	무시와 차별	남북청소년 태도의 차이	
북한친구들은 자존심이 썩	북한학생의 특성		
북한친구들은 강함			
남한학생들은 자유롭고 버릇이 없음	남한학생의 특성		
남한학생들은 욕을 잘함			
남한학생들은 앞뒤가 다름			
남한학생들은 약속을 잘 어김			
남한학생들은 경쟁적임			
남한학생들은 교사를 어려워하지 않음			
부모가 남한문화와 교육을 잘 모름	부모의 지지부족	지지자원의 부족	
부모가 학업 지원을 해주기 힘들			
한 부모 가정임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 지원 부족
북한에 대해 무관심함	배척당함	부정적 상호반응	중심 현상
친구들이 말투를 따라함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배척을 받음			
낮설고 거리감을 느낌	거리감을 느낌		
주목받는 것이 불편함	부정적 정서반응		
친구관계가 긴장되어 몸이 아픔			
창피함			
말이 통하지 않아 친해지기 힘들	소통이 안됨	문화적 단절	
언어가 달라서 친구들과 소통이 잘 안됨			
친구말의 의도를 이해 못함			
말이 이해가 안 되어 아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생각차이로 인해 갈등 겪음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문화적 단절	중심 현상
문화차이로 오해받음			
돈 관계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힘들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문화적 지식 부족		
핸드폰이나 악보사용이 미숙하여 모듬활동에 소극적이 됨			
친구들이 먼저 다가옴		반응적 개방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줌			
친구들이 남한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대함			
잘해주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열리는 마음	거리두기	
출신을 밝히지 않음	자기노출을 피함		
거리를 둠	갈등을 피함		
선별적으로 무시함	활동에 참여함	함께 활동하기	
또래상담활동에 참여함			
모듬활동을 하며 친해짐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선생님에게 도움 청함	지지구하기	
교사에게 도움을 청함			
상담을 받음			
친구들에게 먼저 도움을 청함	친구에게 도움 청함	적극적 관계 맺기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이나 게임을 터득함	남한 언어와 문화를 익힘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함			
친구들을 관찰함			
일반 학교로 전학함	먼저 다가감		
말이 통하는 친구를 찾음			
도움을 주며 친해짐			
먼저 다가가려고 함	분명하게 의사 표현함		
출신을 노출함			
당당하게 표현함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함	적극적으로 수용함	태도 바꾸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입장 바꿔 생각함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남한친구에게 맞춤	적극적으로 수용함	태도 바꾸기	작용/상호 작용 전략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함			
여유를 가지려고 함	낙관적으로 생각함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짐			
스스로를 격려함			
강인함	강인성	회복력	중재적 조건
친구에 대한 기대	관계능력		
내성적 성격			
부정적 친구관계 경험이 있음			
친구사귀 경험이 없음	한계인정		
변화가 쉽지 않음을 수용하고 편안해짐			
지원기관에서 도움 받음	기관의 지지	사회적 지지	
복지관에서 도움 받음			
외부기관을 통해 학업지원 받음			
교사의 관심이 도움 됨	교사의 지지		
교사가 적응을 도와줌			
교사가 도움이 안됨			
탈북학생을 잘 아는 교사가 필요함			
어머니가 지지해줌	가족의 지지		
가족 간의 유대가 부족함			
남한친구의 친절함	우호적 남한친구	남한친구	
친구들이 도와줌			
남한친구들의 변화			
가까운 친구가 필요함	친밀한 남한친구	교류경험	
교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활동참여		
다양한 활동참여가 도움 됨	교류기회		
교류기회가 많음			
학교외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냄	북한친구의 존재	북한친구	
자주 교류하는 북한친구가 없음			
북한출신 친구와 친하게 지냄			
중국출신 탈북청소년과 친하게 지냄	친한 북한친구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북한친구들과의 교제가 편안함	친한 북한친구	북한친구	중재적 조건	
북한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함				
중국어를 잘함	외국어 능력	언어능력		
영어학습 기회				
한국어 공부경험	한국어 능력	언어능력		
말투가 비슷함				
말투가 좋아짐				
학교 경험이 없음	이전학교 경험	학교적응		
학업동기가 높음	학습동기			
공부에 우선순위를 둠				
친구관계 어려움이 사라짐	친구관계 갈등해소	친구관계의 원만한 발달	결과	
친구관계의 답답함이 해소됨				
친구관계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음	친밀한 관계형성			
친구들과 친해짐				
친한 친구가 생김				
북한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려줌	적극적 관계형성			
친구관계에서 적극적이 됨				
다양한 친구를 사귀게 됨				
자신감 상실	관계노력의 좌절			관계 맺기 실패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음				
여전히 소통이 되지 않음				
친한 친구를 못사귀	피상적 관계형성	전인적 역량강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됨	자기인식의 증가			
남한친구들로부터 언어나 문화에 대해 배움	문화적 지식의 학습			
남한친구들을 보고 공부에 대한 자극을 받음	학습동기 상승	전인적 역량강화		
학교 적응이 좋아짐	학교 적응 향상			

## (2)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 분석

### (가)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왜 그 현상이 발생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Strauss & Corbin, 1998). 탈북청소년



들이 남한청소년들과 접촉하게 되는 인과적 조건으로는 ‘남한입국’, ‘북한출신’, ‘남한학교 진학’이라는 범주로 요약되었다.

## ① 남한입국

탈북청소년들은 ‘의도치 않은 탈북’, ‘목적 있는 남한 입국’으로 남한을 입국하게 된다. ‘의도치 않은 탈북’은 원치 않는 탈북을 하게 되는 경우이며, ‘목적 있는 남한 입국’은 가족 재결합을 위해 남한에 오게 되거나 자발적으로 남한에 이주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1. 의도치 않은 탈북

“제가 5살 때 어머니랑 헤어져서 그리웠는데 어머니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저보고 두만강만 건너면 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안보이고 브로커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국 브로커 집에 갔는데 한국에 대한 길안내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그때 그냥 잘못 왔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갈 순 없었으니까 여기 온 것 같아요. 아빠는 당시에 제가 어렸으니까 혼자 보낼 순 없어서 여기 까지 같이 오게 되었어요.”(청소년 B)

### ①-2. 목적 있는 남한 입국

“여기가 아마도 중국이랑 다른 점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청소년 O)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국적이 없는 상태라 국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걸리면 주위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리면 중국에서 잡아가요.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런 위험 때문에 어머니가 남한으로 오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청소년 P)

## ② 북한출신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출신임을 숨기거나 숨겼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개되는 등 ‘노출을 피함’의 경우가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인해 ‘출신이 노출됨’의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②-1. 노출을 피함

“제가 말을 안했어요. 나이 2살 많은데 말 안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알게 된 거예요.”(청소년 H)

“밝히면 대학갈 때 도움이 되긴 하는데, 대학입시는 민감하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밝힌 언니가 있었는데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밝히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청소년 P)

## ②-2. 출신이 노출됨

“제가 여기 오니까 애들이 저를 다 알더라구요. 저는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저번에 단합? 그때 알았어요. 애들이 제가 처음 전학 왔을 때 소문이 돌았대요. 거기서 왔다고, 전 모를 줄 알았는데...”(청소년 A)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먼저 밝히신 거예요.”(청소년 A)

“애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눈치 없게 그런 말을 하나까 아이 생활이 힘들어요. 저희 엄마도 초등학교 때 그런 말을 하셔서 제가 입학식 때부터 힘들었어요.”(청소년 N)

## ③ 남한학교 진학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한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남한 친구들과 접촉하게 된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③-1. 남한학교로 옮김

“남한학교에 대해서 상담사 분들이랑도 많이 얘기해 봤는데 남한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공부에 열중을 하는 거예요. 북한 애들보다는 남한 애들이랑 생활하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했고 북한 애들은 거기서 틀에 박힌 생활을 하잖아요. 정확한건 모르잖아요. 남한 애들은 어느 정도 문화를 아니까 제가 배울 수 있어서 온 거예요.”(청소년 B)

“저는 바로 경찰서에서 빨리 다니면 좋다고 추천해 주시는거예요. 그때는 바로 왔으니까 북한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갔는데,”(청소년 C)

#### (나) 맥락적조건

맥락적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전후관계나 상황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대한 원인 조건들의 영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건들로 왜 현상들이 지속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심리적 어려움’, ‘학교 적응의 어려움’, ‘편견과 차별’, ‘남북청소년 태도의 차이’, ‘지지자원의 부족’이라는 범주로 요약되었다.

#### ① 심리적 어려움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후유증’, ‘위축감’, ‘진로고민’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탈북 후유증’으로는 탈북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탈북과정에서 극심한 위협을 겪고, 북한과 중국 친구에 대한 그리움 등이 있다. ‘위축감’은 ‘심리적 위축’과 ‘키가 작음’의 경우가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서 험난했던 탈북과정을 통해 강인한 특성을 얻어 남한청 소년과의 접촉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경우도 있지만 북한친구에 대한 그리움, 위축감 등으로 인해 남한청소년과의 부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1. 탈북 후유증

“라오스에서 메콩강이 있는데 악어도 많고 배도 많은데 저희가 6인용 보트를 탔는데 배가 뒤집어 졌어요. 그때 한번 목숨을 잃을 뻔 했어요. 그리고 그냥 북한을 떠나서 두만강을 건널 때부터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 때 비도 엄청 오고 장마철 이었는데 두만강에 파도도 심했고, 그때 한분이 실종되셨어요.”(청소년 B)

“핵실험 이런 거 하면 뉴스 나올 때마다, 약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좀 기분이 약간. 애들한테 미안한 것 같고 제가 막 미안하고 그런게 있어요.”(청소년 J)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고. 여기는 학년마다 반도 바뀌는데 북한은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라서 태어났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계속 봤는데 못 보니까. 보고 싶어요.”(청소년 F)

## ①-2. 위축감

“조용한 걸 좋아하다보니까 처음엔 적응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는 성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체구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말랐었거든요.”(청소년 A)

“엄마 아빠가 작아서 그런 거 같아요. 처음엔 약도 먹고 했는데 안 커서 안 먹어요. 그거 때문에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않는데, 제가 그냥 고민해요.”(청소년 F)

## ①-3. 진로고민

“이제 대학이라던지, 취업이라던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아직 있어요.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학 진학도 있지만 취업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따야 한다는 압박감이랑 성적도 올려야 된다는..”(청소년 K)

## ② 학교 적응의 어려움

탈북청소년들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학업능력의 부족’, ‘언어차이’,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남북한 교육의 차이’는 남북한의 학제, 교육내용, 수업방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학업능력의 부족’은 북에서 학교 경험이 없고, 학년을 낮춰서 들어가고,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는 남북한 또래문화와 생활방식이 다르고 남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②-1. 남북한 교육의 차이

“저희는 거기서 6.25 전쟁이란 건 안 배웠거든요? 국정원 들어가서 조사받고 하나원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6.25전쟁에 관한 것을 봤는데 북한이랑 남한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랑 이런 사람들이 옥수수 정도로 끼니를 때우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남한은 너무 교과서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같듯이 생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지? 어떤 식으로 대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렇고 애들한테 다가가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거리감을 느끼고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게 싫었어요.”(청소년 B)

“저는 핸드폰을 쓸 줄 모르잖아요. 애들이 스마트 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데 모뎀활동을 하는데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도움도 많이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생활방식이 달라서.. 북한에서는 고무줄이나 이런 걸로 놀거나 수업도 책으로 했는데 남한은 TV랑 스마트 폰 조사도 많이 하고 모뎀활동도 여기서 처음하고...”(청소년 B)

## ②-2. 학업능력의 부족

“지금은 학교공부가 제일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청소년 B)

“공부라는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진짜 남들처럼 잠 안자면서 공부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험 치고 나면 나는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그 친구들보다 잠 안자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해도 해도 안 되다 가보면 좌절할 때도 있어요. 아 공부를 왜하지,, 어차피해도 안되는데,,”(청소년 C)

## ②-3. 언어차이

“언어적인 면이 가장 힘들었어요.”(청소년 D)

## ②-4.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홈쇼핑 쇼핑 지하철 타는 것도 모르잖아요.”(청소년 F)

## ③ 편견과 차별

탈북청소년들은 ‘부정적 편견’과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부정적 편견’으로는 남한과 남한친구들에 대한 편견이 있고, 북한출신에 대해 좋지 않게 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또한 남한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북한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③-1. 부정적 편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왕따가 나오잖아요. 왕따가 있을까봐 무서웠어요.”(청소년 F)

“저 말고 다른 북한 애들의 생각을 더 포함하자면 쌤님? 도도할 것 같았어요. 애들이 보통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남한 애들이 더 월등할 것 같고.”(청소년 P)

“북한이랑 여기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애들이 안 좋게 볼 것 같았어요.”(청소년 B)

“북한이라고 편견 갖는 애들. 그런 것 있고. 여기서도 북한을 되게 적대시 하더라구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대통령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북한은 미국을 되게 미워하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된게 뭐 미국탓이다. 미국이 한국을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분단된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많이 배워줘야 하고, 가르쳐 줘야 하고.”(청소년 J)

### ③-2. 무시와 차별

“저는 처음에 너 이거 알아? 라는 말도 무시한다고 느꼈고 야 이거 안돼!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는 모르지? 라고 다른 애들한테 말하고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더 무시한다는 느낌이었어요.”(청소년 F)

### ④ 남북청소년 태도의 차이

남한청소년이 느끼는 북한학생의 특성은 ‘자존심이 세고, 강인하다.’ 탈북청소년이 느끼는 남한학생의 특성은 ‘자유롭고 버릇이 없고, 욕을 잘하고, 앞뒤가 다르며, 약속을 잘 어기고, 경쟁적이며, 교사를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강인성과 같은 특성의 경우 남한청소년과의 접촉에서 긍정적인 접촉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접촉을 유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④-1. 북한학생의 특성

“전 자존심이 세다보니까 모르는걸 못물어보겠더라구요. 저는 저 또래애들한테 이런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해요, 다른애들도 그런게 많을 거예요, 웬지 모르게 자존심이 막 강해져요 거기서 살다 여기 오게되면,.”(청소년 A)

“북한 애들은 뭔가 배울 것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시켜요. 나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계속 듣다보니까 철이 빨리 들고 애들이 강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청소년 B)

#### ④-2. 남한학생의 특성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말도 심하게 하고, 그런 게 많이 낫설어요.”(청소년 B)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잘 지내고 평생 친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는 나를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가끔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면서 물어보면 한번은 그냥 그러더라구요. 우리는 여기 자체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그냥 수도없이 배신하고 그러고 하니까 내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가끔은 먼저 배신하고 그래야 하니까 완전 믿지는 못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하죠. 그런것도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청소년 C)

“말과 생각이 다르다는,, 나도 괜찮아 하면서 속은 안괜찮아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걸 읽기가 힘들었어요.”(청소년 K)

#### ⑤ 지지자원의 부족

탈북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지부족’과 ‘경제적 지원 부족’을 경험한다. ‘부모의 지지부족’은 부모가 남한문화와 교육을 잘 모르고 학업 지원을 해주기 힘들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⑤-1. 부모의 지지부족

“저는 엄마한테 이야기 못하겠는게 뭐냐면, 엄마도 북한 그게 있고 저는 한국에 사는데 북한 북한 이런거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엄마가 막 티비보다가 아프리카 애들 보면 너희들 행복한 줄 알아라, 엄마 여기 한국이거든? 이렇게 되거든요.”(청소년 A)

##### ⑤-2. 경제적 지원 부족

“초등학교 때는 아예 친구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어울리기도 힘들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 많이 사귀려고 했는데 돈 문제도 약간 그렇고, 애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

데 저는 그게 안되서 혼자해야 했으니까, 시간도 안되고, 애들이 학원다니고 학교 다니고 밥은 엄마가 다 해주겠지만 저는 안됐거든요.”(청소년 A)

#### (다) 중심현상

현상(phenomenon)이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주된 문제이다(Strauss & Corbin, 1998). 중심현상으로는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과의 접촉과정에서 배척당하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등의 ‘부정적 상호반응’, 소통이 되지 않거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의 ‘문화적 단절’, 다가오는 친구들에 한해서 반응적으로 자기를 개방하는 ‘반응적 개방’이라는 범주로 요약되었다.

#### ① 부정적 상호반응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과 접촉할 때 ‘배척당함’, ‘거리감을 느낌’, ‘부정적 정서반응’과 같은 부정적 상호반응을 경험한다. ‘배척당함’은 북한에 대해 무관심해하고, 친구들이 말투를 따라하고, 놀림과 배척을 받은 경우이다. ‘부정적 정서반응’은 주목받는 것이 불편하고 친구 관계가 긴장되어 몸이 아프거나 창피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1. 배척당함

“중1 때는 남자애들이 공도 맞히고 해서 몸에 상처도 없었는데 상처도 생기고, 많이 울고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랬어요.”(청소년 A)

“친구들이 놀렸는데요. 한 명이라도 도와주는 친구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지켜볼 뿐이죠.”(청소년 N)

“아무래도 다르면 그냥 그것 자체로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배타적인 게 있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배척해 버려요. 다르면 아예 같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청소년 O)

##### ①-2. 거리감을 느낌

“여기 애들은 보통 어릴적부터 시시각각 변하고, 청소년기다보니까, 뭐라고 해야할까, 거기에 약간 끼어들기가 힘들어요, 애들 그리고 두 명에서 친한데 한명이 더 들어갈려면 자연스럽게



올거 같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약간 불안해 하거든요, 제가 학교 투어했을 때 그렇게 들어갔다가 버림받아가지고 약간 실망했던게 있었어요.”(청소년 A)

“반에 들어 왔는데, 그 때도 어떻게 해야 될 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쌤, 담임 쌤이랑만 얘기하고, 애들이랑 그냥 인사 조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그냥 내 친구들한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애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드라마 뭐보고 뭐 보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학원얘기도 하고 그런 건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가지고...”(청소년 I)

### ①-3. 부정적 정서반응

“애들이랑 어울리다보면 약간 신경이 곤두서야된다고 해야하나? 긴장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보니까, 제 자신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만나게 됐어요. 애들 많은데 다니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오후같은때 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팠거든요.”(청소년 A)

“애들보다 한 살 많은데 말이나 그런 부분을 못해서, 공부쪽으로는 잘 못해요. 한 살 많은데 좀 못해서 창피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청소년 K)

## ② 문화적 단절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과 접촉할 때 ‘소통이 안됨’,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문화적 지식 부족’과 같은 문화적 단절을 경험한다. ‘소통이 안됨’은 말이 통하지 않아 친해지기 힘들고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잘 안되거나 친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이 이해가 안되어 아픈 경우이다.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은 생각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문화차이로 오해를 받고, 돈 관계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힘든 경우이다. ‘문화적 지식 부족’은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핸드폰이나 악보사용이 미숙하여 모둠활동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②-1. 소통이 안됨

“말을 해도 친구가 못 알아듣거나 친구가 말을 했을 때 억양이나 이런 게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책도 잘 못 읽었어요.”(청소년 K)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정신이 많이 복잡하고 그래요. 심하게 감기 걸린 것처럼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청소년 N)

“북한에도 욕은 있는데, 여기 욕이 익숙 안되갓고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북한에서 하던 건 익숙한데. 익숙하지도 않은 욕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욕을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화하면, 애들하고 대화가 안되요. 애는 욕하는데, 제가 욕 안하니까 제가 기분 나쁘고.”(청소년 J)

## ②-2.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북한 애들은 친구하면,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하면 허물없이 지내거나 하는데 여기는 그런걸 하는 친구도 있고 안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제 친구는 남자친구랑 친하게 지내거나, 스킨쉽도 아니고 그냥 인사할 때 터치하거나 그런건데 오해를 사서,, 괜히 와서 남자친구 있는거 알면서 왜 꼬리치냐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잖아요 저희 입장에선 그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내가 니들을 도와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나,,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망정,,”(청소년 C)

## ②-3. 문화적 지식 부족

“6학년때는 악보 볼줄도 모르는데 애들 합주하는게 있다보니까 애들한테 피해 많이쳤어요. 애들 말이 저한테 꽃히는거예요 영어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때 음악시간에 울었었어요.”(청소년 A)

“저는 핸드폰을 쓸 줄 모르잖아요. 애들이 스마트 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데 모뎀활동을 하는데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도움도 많이 못주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청소년 B)

## ③ 반응적 개방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과 접촉할 때 ‘친구들이 다가옴’, ‘열리는 마음’과 같은 반응적 개방을 경험한다. ‘친구들이 다가옴’은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고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친구들이 남한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대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③-1. 친구들이 다가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 옆집에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사갔어요.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걔는 성격이 좋아서 편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나이는 같은데 학년이 낮잖아요. 그래서 걔가 잘 챙겨 줬는데 주위에서 애들이 걔가 학교에서 잘 나가는거니까 부러워했어요. 그 친구가 인기가 많았거든요.”(청소년 F)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말을 걸면 말을 해요. 그러다가 안 맞으면 애들이 떠나요. 그런데 착한 애들이 잘 놀아줬어요.”(청소년 P)

“그렇게 딱히 도와줬다가 보단 편하게, 그렇게 북한 애라는걸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리고 일단 애들이 모르는 걸 많이 가르쳐줘요.”(청소년 J)

### ③-2. 열리는 마음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걸 애들이 고쳐주면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같이 다니자 하고, 같이 나가서 놀고 만나서 놀고 이랬어요.”(청소년 O)

####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이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즉 중심현상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회복력’, ‘사회적지지’, ‘남한친구’, ‘교류경험’, ‘북한친구’, ‘언어능력’, ‘학교적응’이라는 범주로 요약되었다.

#### ① 회복력

탈북청소년들은 ‘강인성’, ‘관계능력’, ‘한계인정’과 같은 회복력이 있다. ‘관계능력’은 친구에 대한 기대, 내성적 성격, 부정적 친구관계의 경험이 있거나 친구사귀 경험이 없는 경우이다. 강인성 등의 회복력에 따라서 남한청소년과 긍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성적 성격, 부정적 친구관계의 경험 등의 회복력이 긍정적 접촉에 방해되어 부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1. 강인성

“남한에서 오는 과정 때문에 강해졌어요. 수업을 잘 따라갈 순 없었지만 자신감도 생겼고 강해졌고 활발해졌어요. 북한에서 오면서 어려움을 겪다보니 더 떨어질 것도 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자신감 하나로 버틴 것 같아요.”(청소년 B)

### ①-2. 관계능력

“애들이랑 친하지 않다보니까,, 저는 애들이랑 교실에서 잘 못친해져요 약간 그 트라우마같은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학교를 안다녔으니까 친구라는게 없었어요.”(청소년 A)

“처음 왔을 때 남한 애들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청소년 F)

### ①-3. 한계인정

“새로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애가 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는걸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도 막 아플 때 있긴 한데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아팠거든요 근데 마음 놓으려고 하니까 괜찮아요.”(청소년 A)

## ② 사회적지지

탈북청소년들은 기관, 교사, 가족의 지지를 경험한다. ‘기관의 지지’는 지원기관, 복지관, 외부기관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교사의 지지’는 교사의 관심이 도움이 되고, 적응을 도와주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경우, 탈북학생을 잘 아는 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가족의 지지’는 어머니가 지지해주거나 가족 간의 유대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적응을 도와주는 사회적지지에 따라서 남한청소년과 긍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적지지가 긍정적 접촉에 방해되어 부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②-1. 기관의 지지

“지역이나 도마다 경찰서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곳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 데 안부문자도 보내줘요.”(청소년 B)

“저한테 도움을 주신 곳이 복지관이거든요? 거기 복지관에서는 그런 거 했었어요.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오자마자 같이 문화체험도 같이 가고 가서 영화도 보고 경복궁도 가고 이런걸 많이 했어요.”(청소년 H)

## ②-2. 교사의 지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엄격하셨지만 잘해주셨어요, 한번 상담했었는데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가지고 그때부터 다 털어 놓고 애들이랑 선생님이랑 장난도 잘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 그러면 부모님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그 선생님 이랑 1:1 상담하면서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면서 노력했어요.”(청소년 B)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과 트러블은 없었는데 중학교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라도 하나 도와주시고, 애들이 그냥 알려 주는 거? 학교과제도 잘 알려주고, 자주 그러다보면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았어요.”(청소년 P)

## ②-3. 가족의 지지

“저는 어머니가 좀 상담사이신데 학업에 관련된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선생님이셨고, 지금 무지개센터의 멘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정보를 많이 아셔서,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때부터 공부를 안하고 친구문제 살짝 있는거에 대해서 엄마가 속상해 하셔서 제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과외를 받아왔어요. 여기는 아닌거같은데, 다른데에서 막 과외를 해주시거나 그런 걸 많이 알아와주시거든요.”(청소년 K)

“애들이 놀려서 속상한걸 엄마한테 말하면서 위로가 좀 되었어요.”(청소년 M)

## ③ 남한 친구

탈북청소년들은 우호적이거나 친밀한 남한친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우호적 남한친구’는 친절하고, 도와주고, 남한친구들이 변화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③-1. 우호적 남한친구

“한국에선 제가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초등학교다보니 애들이 저를 다 도와주고 부족한 점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래서 좋았어요.”(청소년 K)

“학교 적응에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고민같은거 얘기하면, 솔직히 4학년 정도 되니까 엄마한테는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청소년 M)

### ③-2. 친밀한 남한친구

“먼저 다가와주고, 말도 좀 걸어주고, 힘든점을 물어보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청소년 L)

## ④ 교류경험

탈북청소년들은 ‘활동참여’와 ‘교류기회’를 통해 남한청소년과 교류경험을 가진다. ‘활동참여’는 교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다양한 활동참여가 도움이 되는 것이 포함된다. ‘교류기회’는 교류기회가 많거나 학교 외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④-1. 활동참여

“어디 놀러가고 약간 다른걸 좀 많이 봐야돼요 그래야 많이 변해요. 저는 그래서 한국 왔을 때 공연을 많이 봤거든요 뮤지컬이랑, 학교에서 재단에 해주셔가지고 공연도 많이 보고”(청소년 A)

“저는 그냥 단체 같은 데 있으면, 활동? 봉사활동이나 스포츠활동 이런 거를 약간 나이 비슷한 대로 또래들끼리 모집광고 해서, 북한 애들이랑 남한 애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 종류를 하면 말 하니까 어느 정도 친해지고, 저희 그 때는 복지관 선생님이 단체 특방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자기소개 하고, 팀별 활동하면 친해지고 하니까, 하면서 친구 되는 거 같기도 하고.”(청소년 I)

### ④-2. 교류기회

“애들이 시험끝나고나 주말이나 시간 있을 때 불러가지고 나가서 놀거나 그런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친해질 수 있어서”(청소년 O)

“여기 애들 수학여행가는 그런 코스로 그냥 가가지고, 영화보고 연극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대학로가서 연극도 보고 그랬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 활동이 있다 이런 것도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공감대가 생기고...”(청소년 H)

## ⑤ 북한친구

‘북한친구의 존재’는 자주 교류하는 북한 친구가 없는 경우이며, ‘친한 북한친구’는 북한출신, 중국출신 탈북청소년과 친하게 지내고 교재가 편안하거나 어울리는 것이 불편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친한 북한 친구에 따라서 남한청소년과 긍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북한친구의 존재가 긍정적 접촉에 방해되어 남한청소년과 부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⑤-1. 북한친구의 존재

“북한에서 온 친구들 만나지는 않고 연락 만해요. 개네는 허세뿐이라서... 뭔가 좀 남한에서는 자유롭다 보니까 평평 쓰고 그래서 제가 더 밀어내요.”(청소년 B)

### ⑤-2. 친한 북한친구

“저희학교에는 중국에서 온 애들이 저희학년에만 11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얘기 하고 그래요. 개네도 그런 힘든 걸 똑같이 겪었어요. 제가 만약에 남자애들이 진짜 싫다. 라고 하면 개네가 다른 여자애들한테는 시비 안 거는 게 저희한테만 시비를 걸면 그렇게 말하면 개도 같이 공감하고 그랬어요.”(청소년 M)

“그냥 북한친구들이 더 편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엄마 아빠랑도 다 아니까 비밀 같은 거 없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원래 아는 사람이니까 친해질 필요도 없고..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애 랑도 연락을 하거든요? 그냥 얼굴만 아는데 공감대가 생겼죠. 지금은 남한 애들 보다 북한 애들이랑 더 친한 것 같아요. 일단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애들이 까먹고 있다가 북한단어 얘기나오면 같이 막 웃고 북한에 있을 때 학교 자랑하고 북한노래 부르고...”(청소년 F)

“북한 친구들 있으면 하나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재밌고 그러니까 다 알고 터놓고 말하고, 뭐 말도 통하지, 문화도 맞지 그러니까 진짜. 편하기는 편하죠. 다른데 있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편하니까.”(청소년 J)

## ⑥ 언어능력

탈북청소년들은 ‘외국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외국어 능력’은 중국어를 잘하거나 영어학습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이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공부경험이 있거나 말투가 비슷하거나 말투가 좋아진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⑥-1. 외국어 능력

“그냥 제가 중국어를 잘하니까 되게 똑똑하다고, 대박이라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중국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도 있구요. 중국어 욕 가르쳐달라는 애들도 있거든요”(청소년 L)

“중국에 있을 때 영어는 여기랑 좀 다르게 영국식으로 좀 배웠었어요.”(청소년 O)

### ⑥-2. 한국어 능력

“평양 말이 톤이 조금 다른데 다른 산골같은데는 단어만 다르고 톤은 비슷해요, 그러다보니까 배우지 않아도 말은 쉽게 했어요.”(청소년 A)

“저는 초등학교 때 보다 중학교 때는 1학년 때부터는 적응을 잘 못했는데 2학년 때부터는 말투가 많이 좋아져서 애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청소년 B)

## ⑦ 학교적응

탈북청소년들은 ‘이전학교 경험’과 ‘학습동기’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학습동기’는 학업동기가 높고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학습동기에 따라서 남한청소년과 긍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전학교 경험 등이 없음에 따라 긍정적 접촉에 방해되어 남한청소년과의 부정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⑦-1. 이전학교 경험

“근데 처음 일반학교 다닐땐 북한 학교도 못다녔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청소년 A)

### ⑦-2. 학습동기

“공부를 저는 그때 약간 북한에선 공부가 중요하단걸 알잖아요, 친구보다 공부한테 매달렸어야했고, 친구랑 어울린적이 많이 없어요. 또 저같은 애들은 공부 같은 곳에서 지기 싫어하는 게 있다보니까, 근데 거기서 온 애들은 보통 아마 그럴거예요.”(청소년 A)

“지금은 공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잘 듣는거? 선생님 말씀 다 듣고,, 다른애들 떠드니까,, 아마도 집에서 학원도 다니니까 그러는거같은데 저는 안다니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필기를 많이 해요. 필기를 많이 하고 집에서 8시간 안에 꼭 복습을 하거든요? 그럼 기억에 남아요.”(청소년 O)

#### (마)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은 연구 참여자들이 중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 행동을 말한다. 이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전략적 혹은 일상적 행위나 반응으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언어적/비언어적인 것뿐 아니라 개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나 검토를 지칭하기도 한다(Strauss & Corbin, 1998). 작용/상호작용으로는 ‘거리두기’, ‘함께 활동하기’, ‘지지구하기’, ‘적극적 관계 맺기’, ‘태도 바꾸기’라는 범주로 요약되었다.

#### ① 거리두기

탈북청소년들은 ‘자기노출을 피함’, ‘갈등을 피함’과 같이 거리두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갈등을 피함’은 거리를 두거나 선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1. 자기노출을 피함

“아예 노출을 안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중국말을 잘하면 중국사람인가 해서 숨졌는데, 최근에는 뭐 중국어도 요즘에 잘하면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중국어 잘한다는말은 하는데 그쪽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안해요.”(청소년 K)

“처음에 다니는 학교는 저랑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같은 애들이어서 괜찮긴 했었는데, 두번째 다니는 학교는 아예 한국 애들만 있는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냥 무작정 밝게 밝은 성격으로 행동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억양 이상하니까 어디서 왔나 물어보면은 음~하고 웃었어요. 자기들끼리 부산에서 왔냐고... (웃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음음음 ~ 계속 그랬거든요. 넘어가긴 했어요.”(청소년 H)

## ①-2. 갈등을 피함

“저는 솔직히 친해지면 애들이랑 지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반에서 딱 봐도 친해지려면 따라다녀야 되고 또 신경 많이 쓰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에서 중립을 지키는 편이에요. 특히 여자애들같은 경우는 고비가 뭐냐면 중립을 지키다보면 먹거나? 체육시간이나? 뭐든지 할 때 이렇게 고빈데, 애들은 그런게 겁나다 보니까 혼자 못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혼자서 견딜 수 있으니까 중립을 지키는거죠. 혼자 있기도 하고 애들한테 다가가기도 하죠 중립이라는게 또 아예 혼자면 왕따인거고, 필요할 때 마다 어울릴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겠죠.”(청소년 A)

“남자애들은 많이 놀렸어요, 여자애들은 괜찮았는데... 많이 놀렸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청소년 M)

“물어보면 그냥 대답해줘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에는 대꾸를 안 해요. 장난스러운 애들도 있을 거 같아요.”(청소년 D)

## ② 함께 활동하기

탈북청소년들은 또래상담활동에 참여하거나 모둠활동을 하며 친해지는 등 ‘함께 활동하기’ 경험을 가진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②-1. 활동의 참여함

“속으로 너무 생각하다보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때는 상담 받았어요, 학교에서 저는 활동같은거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클린도우미도 하고, 또래상담부도 하고, 내가 상담받으면서 상담 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담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청소년 A)

“초등학교 때는 바이올린도 해보고 가야금도 해보고, 어... 그냥 학교 끝나고 거의 바로 집에 가진 않았던 거 같아요. 방과후 신청해서 방과후 듣고, 자격증이긴 한데 저희 학교는 지금 특성화니까 회계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방과후도 있고, 컴활 방과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애들도 하거나, 다른 애들은 이과나 그냥 ‘그런 거 왜 따 귀찮아’ 이런 애들, 따로 학원 다니는 공부하는 애들 있으니까, 저는 공부도 안하고 뭐 하지도 않잖아요. 집에 가면 그냥 딴 짓 하니까 그 시간이 아깝고, 그냥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생활하는 게 나은 거 같아서 방과후 넣으면 많이 신청해서 매년 다 들은 거 같아요. 학기별로 방학 때도 나와서 방과 후 듣고, 그리고 학교에 스포츠 클럽 같은 게 있어요. 스포츠 클럽도 들고, 그런 활동도 하니까 나은 거 같아요.”(청소년 D)

### ③ 지지구하기

탈북청소년들은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을 받는 등 ‘선생님에게 도움 청함’의 경험을 가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③-1. 선생님에게 도움 청함

“보통 제가 많이 알아보려고 해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멘토 쌤 알아보려고 하고, 솔직히 엄마가 한국의 그런걸 잘 모르잖아요. 한국엄마들은 엄마들이 다 마련해주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하거든요. 학교에서 방과 후도 방학 동안에 다닐려고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멘토쌤도 구하고, 용돈 부족할 때 이런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청소년 A)

#### ③-2. 친구에게 도움청함

“친구가 없으면 공부나 놀 때 혼자 해야되잖아요. 근데 친구가 있으면 같이 공부할 때 재미 있고, 조별 수업 많은데 친구들이랑 많이 친하다면 수업 할 때도 재미있고,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거 도와줘 이러면서.”(청소년 O)

### ④ 적극적 관계 맺기

탈북청소년들은 ‘친구에게 도움 청함’, ‘남한 언어와 문화를 익힘’, ‘먼저 다가감’, ‘분명하게 의사표현함’과 같이 적극적 관계 맺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남한 언어와 문화를 익힘’은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이나 게임을 터득하거나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하거나 친구들을 관찰하고, 일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이다. ‘먼저 다가감’은 말이 통하는 친구를 찾거나 도움을 주며 친해지거

나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경우이다. ‘분명하게 의사표현함’은 출신을 노출하거나 당당하게 표현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④-1. 남한 언어와 문화를 익힘

“그쵸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모르는건 그냥 저희가 노력을 해야되잖아요 많이 찾아보거나, 아니면 진짜 무턱대고 모르면서도 아는체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아는체 하고, 모르는 이야기 나오면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편하고 불편하고 그게 아니라. 아직도 편하지는 않죠. 그냥 애들이 다 안다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하니 까 모르면 또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자꾸 그러죠 아직까진 편하진 않은거 같아요”(청소년 C)

“저희는 이상한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 비글미 같은 거. 개가 그것도 잘 맞춰주고 아재개그도 많이 하거든요? 남한 생활 잘 하려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건데 집에서 핸드폰으로 찾고...”  
(청소년 F)

#### ④-2. 먼저 다가감

“먼저 다가가지 않고 있으면 다가오겠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상담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다가가는게 좋다고. 그런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북한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걸 안하는거예요. 다가가는걸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항상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배운 점이나 그런거는 먼저 다가가는거? 진짜 간단한 안녕 이런거라도. 가서 인사라도 하고. 밥을 혼자먹는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앉아도 돼? 같이 밥먹어도 돼? 그래요. 항상 먼저 다가갔던거 같아요. 그런 면을 많이 배웠죠.”(청소년 C)

#### ④-3. 분명하게 의사표현함

“그러면 일단 하지 말고 해야죠. 그런데 저는 남자애들이랑 별로 안놀아서 시비걸면 하지 말라고 해요.”(청소년 M)

“제가 왔다는 걸 밝히니까, 숨기지 않아도 되고, 그 때부터 활발하게 지낸 거 같아요. 그냥 말 하고 인사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애들한테 물어보고, 짝꿍인 애들한테 물어보고, 개들도 북한에 대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좀 생각하는 애들은 좀 그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좀 실례.. 약간 하는 거 같아서 애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 때부터 그냥 애들이랑 막 지냈어요. 여기 애들처럼.”(청소년 I)

## ⑤ 태도 바꾸기

탈북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등 ‘태도 바꾸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수용함’은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남한친구에게 맞추거나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함’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거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⑤-1. 적극적으로 수용함

“애들도 원망하지만 저를 바꿀려고 하거든요? 바꿀려고 할 때 도움 주는분도 있고, 내가 바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학 갔을 때 그때도 좀 더 바뀌어야지, 전 학교보다는 인사도 해야지 머리로 생각하다보니까 많이 바뀐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걸 바뀌어야지 하고 해결할수 없는거라면 포기하고 그래요. 4학년 때는 애들 원망 진짜 많았어요. 귀찮았는데, 바꿀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전 계속 1년만, 1년만 이러면서 버텼어요.”(청소년 A)

“저는 지금은 완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한국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또 엄마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민족은 저의 민족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거는 아닌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한국이 더 좋아요.”(청소년 K)

### ⑤-2. 낙관적으로 생각함

“제 마음을 놓는거죠. 애들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야되요.”(청소년 A)

“난 북한에서 왔으니까 이 정도는 잘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청소년 F)

“솔직히 학교 생활은 저 혼자 하잖아요. 자기 마음 가짐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니까 너무 걱정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걱정하긴 했는데, 걱정하니까 오히려 제가 수축되어라구

요. 아니 위축되지 않고 (웃음) 좀 활발하게 행동 못하는 거 같고 다른 사람 신경쓰지 말고 자기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청소년 H)

#### (바)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내지는 상호/상호작용에 의해 상황에 반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8). 즉,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갖게 된다. 결과는 ‘친구관계의 원만한 발달’, ‘관계 맺기 실패’, ‘전인적 역량강화’라는 범주로 요약되었다.

#### ① 친구관계의 원만한 발달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과의 긍정적 접촉을 경험하고 난 뒤 ‘친구관계 갈등해소’, ‘친밀한 관계형성’, ‘적극적 관계형성’을 경험한다. ‘친구관계 갈등해소’는 친구관계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친구관계의 답답함이 해소되는 경우이다. ‘친밀한 관계형성’은 친구관계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거나 친구들과 친해지고 친한 친구가 생기는 경우이다. ‘적극적 관계형성’은 북한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려주거나 친구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되고 다양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1. 친구관계 갈등해소

“친구관계는 내가 노력 안하면 하기가 힘든거니까, 저는 선생님들 해주시는게 없거든요 솔직히 담임선생님이라고 해도, 그건 애가 너무 힘들어 할 때 그때만 도움을 주는거지 평소에는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애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면서 생각을 좋은데로 갈 수 있게 유도 해주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혼자 막 생각하면 이상한데로 가서 이런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면서 제 속으로 결론을 내거든요, 그럼 결론을 좋은데로 가게 해주는거? 그거 좋은거 같아요.”(청소년 A)

“또래 상담자로서 활동을 한 그 때부터 활발해지고 적응을 잘했어요. 그리고 또래상담 받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혼자 고민하는 것 보다 애들이랑 얘기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랬어요.”(청소년 B)

## ①-2. 친밀한 관계형성

“친구들이랑 거의 게임해요. 가장 친한친구랑은 활동 시간에 같이 말하다가 가장 친해졌어요.”(청소년 G)

“지금 여러명이랑 친해요. 몇 명이랑 깊게 사귀는건데, 그 외의 아이들도 친한 편이에요.”(청소년 K)

## ①-3. 적극적 관계형성

“북한에서 쓰는 단어 사투리 수업시간에 알려주고 그러면서 원래 과목했는데 말이 좀 많아졌어요.”(청소년 G)

## ② 관계 맺기 실패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과의 부정적 접촉을 경험하고 난 뒤 ‘관계노력의 좌절’, ‘피상적 관계형성’을 경험한다. ‘관계노력의 좌절’은 자신감 상실과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②-1. 관계노력의 좌절

“제가 딱히 노력은 많이 했지만 중학교 애들은 좀 못된 마음들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청소년 K)

### ②-2. 피상적 관계형성

“그리고 아직 솔직히 마음 탁 털어놓고 한국 친구를 못만들었어요.”(청소년 A)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냥 놀기만 해요. 도움되는건 없어요.”(청소년 N)

## ③ 전인적 역량강화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과의 긍정적 접촉을 경험하고 난 뒤 ‘자기인식의 증가’, ‘문화적 지식의 학습’, ‘학습동기 상승’, ‘학교적응 향상’을 경험한다.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③-1. 자기인식의 증가

“학교에서 뭐 어디 갔었는데 진실게임같은거 했는데 애들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친해지고 싶은데 어렵다고,, 친구가 마음 문 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했거든요? 저는 항상 열고 있는데 왜 그러지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도 모르게 까칠해지고 닫게되고 그런건 있는 것 같아요.”(청소년 C)

### ③-2. 문화적 지식의 학습

“좋은 점은 남한친구랑 만나다보니까 아는게 많아지잖아요. 모르는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랑 만나다보면 대화도 많이고, 저희는 당연히 모르는거지만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보면 알게되기도 하잖아요. 정보나, 애들은 좋아하는게 아이돌이나, 저희는 근데 그런건 없잖아요. 북한에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영화배우나 그런걸 좋아하는게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그친구들이 좋아하는게 있고, 저희는 그걸 또 계기로 그걸 찾아보게 되고, 애들은 어떤걸 좋아하는구나 이런걸 하고 노는구나 그런걸 알게 되죠. 저희도 그런걸 찾아보게 되다보니까 내가 좋아하는걸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거를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디서 놀아야되는지 어디가야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다니면 뭐든지 다 해결되잖아요. 걔들은 항상 가는 곳이고 많이 가는걸 알고 있고 하니까”(청소년 C)

“다니면서 애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적응하는데 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배우다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거”(청소년 P)

### ③-3. 학습동기 상승

“지금은 공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잘 듣는거? 선생님 말씀 다 듣고,, 다른애들 떠드니까,, 아마도 집에서 학원도 다니니까 그러는거같은데 저는 안다니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필기를 많이 해요. 필기를 많이 하고 집에서 8시간 안에 꼭 복습을 하거든요? 그럼 기억에 남아요.”(청소년 O)

### ③-4. 학교적응 향상

“저는 원래 조용하고 말이 없고 좀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애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점점 업되는. 성격이 좀 변했다고,”(청소년 K)



“지금은 적응해서 제가 그걸로 친구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청소년 M)

지금까지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을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분석 방법에 따라 설명하였는데, 이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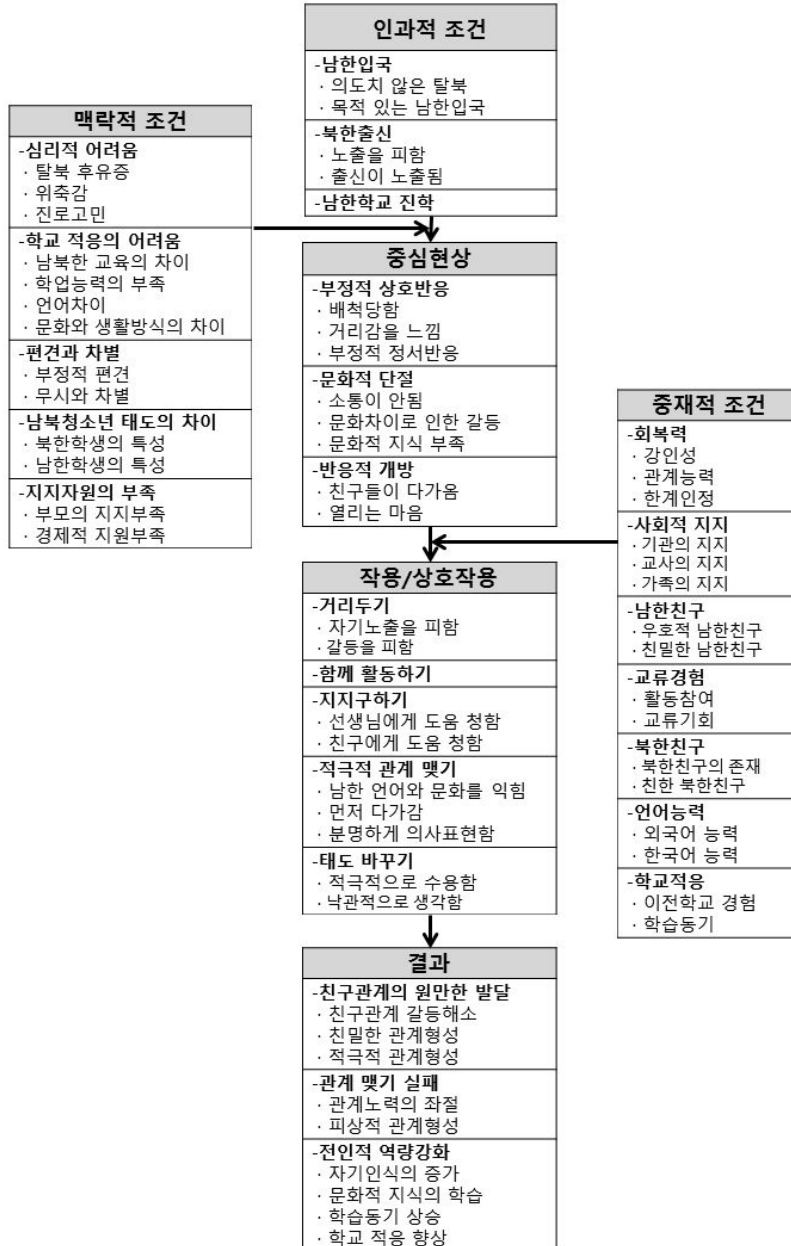


그림 3.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그림 3에 제시된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분석은 연구결과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는데, 이를 다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청소년들은 ‘남한 입국’, ‘북한출신’, ‘남한학교 진학’으로 인해 남한청소년과의 접촉을 경험해야 했다(인과적조건). 접촉의 내용은 중심현상으로 범주화 되었는데 여기에는 ‘부정적 상호반응’, ‘문화적 단절’, ‘반응적 개방’이 포함되었다(중심현상). 접촉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 것들은 맥락으로 범주화 되었는데 ‘심리적 어려움’, ‘학교 적응의 어려움’, ‘편견과 차별’, ‘남북청소년 태도의 차이’, ‘지지자원의 부족’이 포함되었다(맥락적 조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는 ‘회복력’, ‘사회적지지’, ‘남한친구’, ‘교류경험’, ‘북한친구’, ‘언어능력’, ‘학교적응’이 포함되었다(중재적 조건). 탈북청소년들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여기에는 ‘거리두기’, ‘함께 활동하기’, ‘지지구하기’, ‘적극적 관계 맺기’, ‘태도 바꾸기’가 포함되었다(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과의 접촉에서 ‘친구관계의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관계 맺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전인적 역량강화’가 되기도 한다(결과).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먼저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자출신으로 학교에서 남한청소년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 정서반응을 경험하고, 문화적 단절감을 느끼며, 다가오는 친구에 경우에만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탈출과정에서의 후유증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 학습의 어려움, 지지자원의 부족, 남한친구들의 편견과 차별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 접촉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정서 반응 등은 개인의 회복력, 또래 등의 사회적지지, 남한친구의 도움, 교류경험, 북한친구들과의 교류 등에 영향을 받아 함께 남한친구들과 활동하고, 지지를 구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관계가 원만해지고 이는 결국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한친구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행동은 결국 피상적인 관계만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현장요구분석 III : 남한청소년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 가) 조사 목적

본 연구는 남북한청소년의 긍정적인 접촉을 도모하여 또래상담자들의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청소년들이 탈북청소년과의 접촉과정에서의 경험을 탐색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헌연구에서는 남한청소년이 탈북청소년과의 접촉과정에 대한 탐색과 보고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탈북청소년들을 친구로 두고 있는 남한청소년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들과 접촉과정은

어떠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계기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청소년이 탈북청소년과 긍정적인 접촉을 촉진시키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 나) 인터뷰 참여자

본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탈북청소년을 친구로 사귀거나 만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교사 추천 및 탈북청소년의 친구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총 네 집단으로, 두 집단은 서울에서, 한 집단은 부산에서, 한 집단은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의 한 집단은 고등학교 3학년 남자 2명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고등학교 3학년 여자 6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부산지역의 한 집단은 고등학교 3학년 여자 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의 한 집단은 고등학교 1학년 여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탈북청소년을 만난서 친하게 지내 최소 1년 이상은 탈북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지역	대상자	성별	연령(학년)	탈북청소년		
				처음 만난 때	친구명수	언제부터 친구
서울	청소년A	남	19세(고3)	중2	2명	중등
서울	청소년B	남	19세(고3)	고1	2명	고등
서울	청소년C	여	19세(고3)	고2	1명	고등
서울	청소년D	여	19세(고3)	고2	2명	고등
서울	청소년E	여	18세(고3)	고2	2명	고등
서울	청소년F	여	19세(고3)	고1	2명	고등
서울	청소년G	여	19세(고3)	고1	2명	고등
서울	청소년H	여	19세(고3)	고1	2명	고등
부산	청소년J	여	19세(고3)	고2	2명	중등
부산	청소년K	여	19세(고3)	고2	1명	고등
경기	청소년	여	17세(고1)	중2	1명	중등

#### 다) 면접질문지의 구성

심층면접 질문지는 다수의 질적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학 박사 2인, 박사수료 1명과 상담학 석사 3인이 참여하여 구성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다. 면접질문지 협의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연구과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용어 사용의 합의를 위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합의된 연구과제의 개념과 일치된 용어를 활용해 남한청소년의 탈북청소년과의 접촉과정 등 연구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 후, 반구조화 된 질문형태를 구성하였으며, 질문목록을 연구개발진의 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최종 면접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면접내용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 탈북청소년과 접촉경험,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라) 자료 수집 과정

인터뷰는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부산 집단과 경기집단은 연구진이 진행하였고, 서울 두 집단은 상담전문가가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대상자들의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집단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인터뷰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면접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비밀 유지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인터뷰의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각 인터뷰에서는 질문지의 맥락을 충실히 따르되 질문지 내용 이상의 반응에 대해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맥락에 따른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등 반구조화 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 및 전사하였다.

## 마) 포커스그룹 내용 분석

인터뷰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중심으로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한 줄 한 줄 검토하여 자료속의 개념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들이 일련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범주들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축코딩이다. 축코딩을 통해 일련의 관계가 확인된 번두들은 대범주와 소범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전사된 축어록 자료를 두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분석한 후 서로가 작성한 의미범주를 상호 검토하여, 의미자료를 선택하고 각 자료에 대한 1차 명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각자 축어록에서 초기 범주화를 지지하기 위한 각각의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로 범주화하였다. 네 차례의 미팅과 지속적인 문서자료를 보고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 내용을 수정·도출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와 분석 내용을 상담 및 질적 분석 전문가 1인의 감수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 바)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핵심이 되는 대범주와 그에 따른 14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 ① 접촉 전 탈북청소년 인상

탈북청소년을 만나기 전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인터뷰의 분석 결과 3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연민’, ‘부정적 인상’,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범주화되었다.

먼저 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이 가난하고 안 좋은 나라에서 온 완전 불쌍한 사람이라는 연민이나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세계가 있는 폐쇄적인 사람들이며, 복장이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보고하였다. 반면, 이들은 특별한 편견 없이 다른 지방에서 전학 온 친구들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 ② 접촉 후 탈북청소년 인상

탈북청소년과 만나고 친해지는 등의 접촉을 한 후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인터뷰 분석 결과는 2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부정적 인상의 감소’와 ‘긍정적 인상 형성’으로 범주화되었다.

먼저 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비슷한 생활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와 다르지 않으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연민이 감소하고, TV에 나오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한청소년들은 접촉경험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들이 힘겨운 탈북과정을 버티고 견디어 내는 등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멋있고,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모습이 당당하고 용기 있어 보이며, 폐쇄적 사회에서 교육받아 틀에 박힌 사고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로운 생각이나 개방적인 사고를 해서 놀랐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 ③ 접촉과정에서 힘든 점

남한청소년들에게 탈북청소년과 친해지거나 만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나이차로 인한 갈등’, ‘대학 특례 거부감’, ‘문화차이’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차로 인한 갈등과 관련하여, 남한청소년들은 대대체로 나이가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언니’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길 원한다거나 반말을 하지 않길 원하는 등 언니로 대우해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또래 친구로 지내다가 후에 탈북자임을 서로 알게 되면서 심해지는데, 탈북청소년은 신분노출 후 언니로 호칭을 변경해주시기를 원하지만, 남한청소년의 경우 또래친구를 갑자기 언니로 대하는 것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북한출신 특례 거부감과 관련하여, 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대학을 쉽게 들어가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화가 나고 불공평하게 여겨진다는 감정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차이와 관련하여 남한청소년들은 북한관련 화제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탈북청소년들에게 무의식중에 상처를 주게 될까봐 말조심을 하는 등 조심스러워지게 되며, 억양이나 단어를 몰라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서로 난감해할 때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 ④ 친해지는 방법

탈북청소년들과 어떻게 친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는데, ‘다가감’, ‘공감대형성’, ‘공통관심사 공유’, ‘문화이해’로 범주화되었다. 먼저 ‘다가감’과 관련하여 남한청소년들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탈북청소년들이 먼저 다가와서 친해졌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공감대 형성’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캠프 프로그램에서 탈북친구들과 서로 힘든 점과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통관심사 공유’에서는 같은 반 친구로 같이 운동이나 게임 등 취미를 공유하거나 장난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이해’ 범주에서는 북한출신임을 스스로 개방하면서 당당하게 느껴졌고, 북한이나 북한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친해졌고, 다른 사회에서 자라서 우리와는 의견이 달라서 배울 점이 많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친해졌다고 보고하였다.

#### ⑤ 또래상담 프로그램 제안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남한청소년들은 먼저 주요 대상이 남북청소년 모두 또래상담자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으며, 탈북청소년을 경험해본 친구나 공감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좋을 거 같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구성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영화나 게임 등 자연스럽게 또래 간에 체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기, 남한적응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이 힘들어 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북한 문화나 북한에 대해 이해하기, 친구 되는 방법, 탈북친

구들의 학습도움 및 생활적응 등 도움을 주는 방법이나 상담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표 6.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내용분석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접촉 전 탈북청소년 인상	연민	불쌍함
	부정적 인상	폐쇄적
		보수적
나와 같은 사람 (편견없음)	지방에서 이사 온 사람	
		선입견 없음
접촉 후 인상 변화	부정적 인상 감소	비슷한 생활양식 및 언어 사용
		연민 감소
		탈북자에 대한 편견 해소
	긍정적 인상 형성	탈북과정의 어려움 극복
용기 있음 개방적·자유로운 사고		
접촉과정에서 힘든 점	나이차로 인한 갈등	언니 호칭 및 존대말 사용 등 어려움
	대학특례 거부감	대학 입학 특례에 대한 불편함
	문화차이	북한 관련 화제 시 조심스러움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		
친해지는 방법	다가감	남한친구가 먼저 다가감
		북한 친구가 다가옴
	공감대 형성	서로 고민 토로
		프로그램 함께 참여
	공통관심사 공유	공동취미 통해 친해짐
일상생활 공유		
문화 이해	스스로 북한출신임을 개방	
	북한에 대해 배움	
	다른 문화서 자란 친구 의견 배움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제안	대상자	남북청소년 모두
		탈북청소년과 친한 사람
		공감 능력 있는 사람
	내용	또래문화 이해 및 체험 (영화, 드라마 등)
		남한 적응에서의 어려움 이해
		북한문화나 북한에 대한 이해
		친구 되는 방법
		도움 및 상담방법 (학습도움 및 생활적응 돕는 방법)

## 5)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도교사 및 탈북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남한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주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의 어려움,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등으로 범주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장전문가 및 탈북청소년, 남한청소년은 공통적으로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과 접촉할 때,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문화적 지식 부족,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문화적 단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남한청소년 역시 북한에 대한 문화 이해 부족, 언어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 모두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화적 단절을 경험하고 상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 문화 수용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지도교사 및 탈북청소년 모두 학교생활적응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특별히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들과의 접촉경험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지도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편견으로 인한 위축, 또래와의 관계형성, 북한 출신에 대해 좋지 않게 볼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청소년 인터뷰에서 탈북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탈북자출신으로 북한출신이라고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한청소년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반응을 경험하고, 문화적 단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PTSD, 학습의 어려움, 경제적 자원의 부족 등 개인적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남한친구들의 편견과 차별 같은 사회적 요인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접촉과정에서의 부적응적인 현상은 또래 등의 사회적지지, 남한친구의 도움, 교류경험으로 인해 남한친구들과 활동하고, 친구들의 지지를 구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으로 하여금 남한 또래들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이루도록 돕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남한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지도교사 인터뷰에서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편견으로 인한 위축과 따돌림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고되었고, 탈북청소년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남한학생들의 편견과 차별이 남한친구들과의 부정적인 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되었다. 특히, 남한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실제로 탈북청소년들을 접촉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접촉 후에 긍정적인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청소년들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탈북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탈북청소년들이 탈북출신임을 숨기거나 꺼려하는 행동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교사의 인터뷰에서도 신분노출 두려움으로 인한 비행행동을 하거나 신분노출에 대한 조심스러움으로 지도가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탈북청소년 인터뷰에서도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북한출신으로 노출됨으로써 학교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탈북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남한청소년들과의 인터뷰와는 다소 다른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는 남한청소년이 탈북청소년들의 신분노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탈북청소년들의 신분노출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과의 접촉 과정에서 긍정적인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고 부정적 모습을 학습하기도 한다.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과의 긍정적인 접촉은 탈북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남한청소년 역시 탈북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과의 긍정적 접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탈북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장 전문가의 심층면접 결과, 탈북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남한청소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또래상담자 뿐만 아니라 교육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 교육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운영 시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을 지도하는 전문상담사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이 보급될 필요가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급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 및 수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교육 및 활동별로 학교 급에 따라 필수·선택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지도자들이 교육 시 쉽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 및 탈북청소년, 남한청소년의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원리 및 구성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나. 구성 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서 구현해야 할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프로그램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지도교사 및 탈북청소년 심층면접, 남한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본 구성원리를 도출하고, 그 구성원리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조직하여 그에 맞는 세부내용을 통해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지도교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1) 프로그램 구성원리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및 구성요소 추출을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지도교사 및 탈북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남한청소년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지도교사 대상으로 ‘탈북청소년 적응에서의 어려움’,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 ‘탈북청소년 지도방안’,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학교적응의 어려움, 편견과 차별,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태도 차이, 지지자원의 부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남한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접촉 전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 ‘접촉 후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 ‘남한청소년과의 접촉과정에서 힘든 점’, ‘남한청소년과 친해지는 방법’,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제안’을 살펴보므로써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구성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접촉과정에 따라 또래상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회기를 구성하고 개발하였다.

가)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편견을 인식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한청소년은 탈북청소년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남한청소년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탈북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있는 폐쇄적인 사람, 복장이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남한청소년과 접촉할 때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문화적 지식부족’ 등과 같은 문화적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은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고정관념 및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문제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남한청소년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프로그램 구성 시, 남한청소년 및 탈북청소년의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여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나)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 및 공감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지도교사 대상 심층면접 분석결과 탈북청소년이 한국생활 적응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크게 ‘가정문제’, ‘문화적응문제’, ‘학교생활문제’, ‘탈북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생활문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문제를 돕기 위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 및 공감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은 서로에 대한 문화 이해 부족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탈북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통해 서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고정관념 및 편견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은 문화접촉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접촉이 증가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그 결과 한 개인을 집단의 특성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져 타집단에 대한 다양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다문화 구성원에 대해 편견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청소년들의 탈북청소년들과 질 높은 접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남한청소년이 갖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문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프로그램 구성단계는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또래상담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 총 4회기로 구성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및 탈북청소년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과의 접촉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 남한청소년과의 친밀한 관계형성, 적극적 관계형성을 통해 원만한 친구관계를 이루거나 탈북청소년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친구관계에 있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피상적인 관계형성에 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을 위해서 남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접촉을 이를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남한청소년뿐 아니라 탈북청소년 역시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여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 및 자기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첫째, 남한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 인식하기, 둘째, 탈북청소년이 갖고 있는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문화 수용성 함양하기(2회기), 셋째, 탈북청소년 및 긍정적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도움주는 친구되기(3회기), 넷째,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의 자기 성장하기(4회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으로 구성한다.

지도교사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문화 수용성은 긍정적인 접촉을 경험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형태에 있어서도 통합교육으로 구성하여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간의 긍정적인 접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내용 구성

### 가) 프로그램 목표 설정

문헌연구 고찰 및 현장 전문가, 탈북청소년 심층면접, 남한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앞의 구성 원리에 의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또래상담자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 인식한다.

둘째, 또래상담자들은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한다.

셋째, 또래상담자들은 탈북청소년이 실제 학교에서 또래와의 접촉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운다.

넷째, 또래상담자들은 탈북청소년의 성격강점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음을 이해한다.

위의 목표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의 구성모형 및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모형

단계	하위목표	구성요소	세부내용
들어가기	북한에 대한 이해	- 북한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이해	- OX 퀴즈를 통한 북한 이해하기
1회기. 낮섭 1	고정관념 및 편견 인식	- 고정관념 및 편견 확인 - 편견 및 편견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험	- 나의 고정관념 및 편견 점검하기 - 타인의 입장에서 편견 경험하기 -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안 탐색하기
2회기. 낮섭 2	다문화 수용성 함양	-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 이해 -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이해	-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 이해하기 - 탈북청소년의 긍정적 자기노출을 위한 방법 생각해보기 -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이해하기 - 또래상담자로서 다문화 수용성 함양하기
3회기. 만남	긍정적 접촉 경험	- 남북한 청소년의 상호 이해하기 - 도움 주는 친구 되기	- 남북한 청소년의 언어차이 인식하기 - 탈북청소년에게 도움주기(다알쥬, 원무지계) - 역할극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 상호 이해하기
4회기. 성장	상호이해를 통한 성장	- 성격강점 발견하기 - 나의 삶의 의미찾기	- 자신의 성격특성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 삶의 의미 인식하기 -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 확인하기

## 나) 프로그램 운영원리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

지도교사 심층면접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문제는 한국 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된 바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학교 전문상담사 및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심층면접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와 같이 신분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외부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이 보급될 필요도 있다. 이에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무지개청소년센터, 하나센터 등 탈북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접촉과정에 따라 총 4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는 50분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은 1회기부터 4회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인 지식,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술, 활용도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동영상 자료, PPT 등의 시청각 자료와 개인 활동지, 역할극, 집단 토론 등의 활동을 포함하였다.

#### 다) 프로그램 초안 세부 내용

본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선행연구 및 지도교사, 탈북청소년, 남한청소년 대상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구성원리에 따라 각 회기별 목표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각 회기에 제시된 사례의 경우 탈북청소년의 인터뷰 내용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1회기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의 고정관념 및 편견을 점검하고, 편견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낮췄①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2회기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이해하는 낮췄② 단계,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 간의 상호 이해를 돕고 도움 주는 친구 되기 대화 기법을 습득하는 만남 단계, 친구관계의 원만한 형성 및 역경 속 자신의 성장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로 구성하였다.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 시간과 세부 내용은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내용

단계	시간	목표	세부 내용
들어가기	10분	- 북한 이해	- 북한에 대한 OX 퀴즈 : O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다짐
1회기 낮췄①	60분	- 나의 고정관념 및 편견 점검하기 - 편견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험하기	- 도입활동(15분) •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 내용 소개 • 단어카드를 활용하여 또래상담자 간의 말 전하기 게임을 통해 처음 만들어진 문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해봄 - 주요내용(45분)

1학기 낮설①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고정관념 및 편견 점검하기</li> <li>- 편견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험하기</li> </ul>	<p>1. 있는 그대로 본다?(2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눈의 안경 : 3개의 서로 다른 그림카드에 그려진 아이의 배경을 설명한 후, 그림에 그려진 아이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해해 봄 : 서로 다른 배경에 따라 그림에 그려진 아이의 감정에 대해 편견을 갖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봄</li> <li>• 편견의 영향 : 팔이 없는 사람의 사진 3개를 제시하고 피아니스트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편견을 점검해봄 : &lt;편견이 부른 비극&gt; 동영상(4'13")을 시청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봄</li> <li>• 편견 경험하기 : 사례를 통해 탈북청소년이 바라보는 남한청소년에 대한 편견, 남한청소년이 바라보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경험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봄</li> </ul> <p>2. 있는 그대로 본다!(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옴비토나 교수 동영상 시청(8'57")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옴비토나 교수의 사례를 통해 편견 없이 타인을 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봄</li> <li>• 명언을 통해 해결책 찾기 : 여러 개의 명언을 제시하여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명언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눔 : 선택한 명언을 통해 편견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법 생각해보기</li> </ul>
2학기 낮설②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 이해</li> <li>- 문화수용성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활동(5분) •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 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하기</li> <li>- 주요내용(55분)</li> </ul> <p>1. 나는 미운 오리 새끼(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운오리 새끼의 독백 : 웹교재에서 나오는 나레이션을 통해 미운 오리새끼의 마음을 상상해봄</li> <li>• 미운 오리새끼 찾기 게임 : 역할(오리, 주인, 백조)이 정해진 카드를 무작위로 뽑아 각각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연기함. 주인 역할을 하는 조원은 오리와 백조 중 진짜 오리를 찾아 봄 : 게임을 끝나고 난 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어떠한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 해봄, 특히 오리의 역할을 맡은 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숨겨야 했을 때의 기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 봄</li> <li>• 미운 오리새끼 마음 속 들어가기(10분) : 3개의 상황을 제시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오리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해 봄</li> <li>• 미운 오리새끼는 백조(20분) : 백조가 된 오리의 모습을 통해 오리의 내부적, 외부적 노력에 대해 살펴봄</li> </ul> <p>2. 다문화 수용성(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 수용성의 과정을 살펴봄</li> </ul>

3회기 만남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의 상호 이해</li> <li>- 도움 주는 친구 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활동(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민정음 놀이 :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여 1분 동안 대화를 통해 외국어 및 외래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봄</li> <li>• 풍선 2인 3각 게임 :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여 두 사람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봄</li> </ul> </li> <li>- 주요내용(5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다알쇼&gt; 전략 복습하기(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가가기 : 탈북청소년이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래상담자로서 탈북청소년에게 다가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봄</li> <li>• 알아보기 : 원무지계 전략을 통해 탈북청소년과의 대화, 관찰, 정보수집 과정을 거쳐 탈북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봄</li> <li>• 조력하기 :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에 대한 해결방법을 브레인 스토밍해보고 각각의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얘기해 봄</li> </ul> </li> <li>2. 역할극을 통한 상호이해(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극 : 역할극 카드(양탈북, 왕궁금, 오지랴, 이놀림, 박무관)를 무작위로 뽑아 카드의 앞면에 있는 상황 및 대사에 맞춰 역할극을 시연해 봄 : 카드 뒷면에 있는 속마음 대사를 큰 소리로 읽은 후, 역할극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공유해 봄 : 향후 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방향을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고, 역할극 해봄</li> <li>• &lt;청춘시대&gt; 동영상 시청 : 동영상 시청을 통해 탈북청소년뿐 아니라 남한청소년들 역시 친구들 관계에서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들을 이야기 해보고 공유해 봄</li> </ul> </li> </ol> </li> </ul>
4회기 성장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성격특성 이해하기</li> <li>- 역경 속 성장 경험 나누기</li> <li>- 다문화 역량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활동(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관점 바꾸기 : 웹교재를 통해 부정적인 느낌의 성격특성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봄 : 롤링페이퍼를 통해 자신의 성격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보고 소감 나누기</li> </ul> </li> <li>- 주요활동(3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셉킵 동영상 시청 : 조셉킵 동영상을 통해 역경을 통해 성장을 할 수 있음을 공유함</li> </ul> </li> <li>1.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터 프랭클 동영상 시청</li> </ul> </li> </ol> </li> </ul>



4회기 성장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성격특성 이해하기</li> <li>- 역경 속 성장 경험 나누기</li> <li>- 다문화 역량 증진</li> </ul>	<p>: 실존주의에 대한 동영상 시청 후, 내 삶의 의미에 대해 한줄평을 써보고 조원들과 함께 내 삶의 의미에 대해 선포하는 의식을 가짐</p> <p>- 마무리 활동(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감 나누기</li> </ul> <p>: 지금까지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공유해 보고 앞으로 또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 봄</p>
-----------	-----	--	---

## 2. 프로그램 효과검증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설계, 측정도구,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 중인 중·고등학교 중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희망한 서울광역시 소재 1개 고등학교, 부산소재 1개 고등학교, 부산소재 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절차는 학교 또래상담 동아리 지도교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학생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26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그러나 실험집단에 참여자 1명이 프로그램 불참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실험집단에 25명, 통제집단에 26명이 배치되었다. 본 프로그램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9.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구분	실험집단(N=25)		통제집단(N=26)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지역	서울	10	40.0	12	46.2
	부산	15	60.0	14	53.8
성별	남	11	44.0	13	50.0
	여	14	56.0	13	50.0
학교급	중학교	7	28.0	7	26.9
	고등학교	18	72.0	19	73.1
합계	25	100.0	26	100.0	

## 나. 연구설계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진 3명과 또래상담 지도교사 1인이 실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이전에 청소년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었으며, 학력은 박사 1명, 석사 3명이었다.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주일에 2시간씩 2회에 걸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사후검사 및 프로그램 평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시하였다.

표 10. 시범운영 지도자 특성

번호	성별	지역	나이	상담경력	소속	학력	상담관련 자격증
1	여	부산	46	14년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박사	상담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1급
2	여	서울	31	4년	대학학생생활 상담센터	석사	청소년상담사 2급
3	여	부산	28	2년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석사	전문상담사2급
4	여	서울	29	1년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석사	음악심리 상담전문가

본 연구는 시범운영을 통해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탈북주민들에 대한 호감도, 정서와 다문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인은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내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연구 설계

연구대상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sub>1</sub>	X <sub>1</sub>	O <sub>2</sub>
통제집단	O <sub>3</sub>		O <sub>4</sub>

O<sub>1</sub>, O<sub>3</sub> : 사전검사(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정서, 다문화 인식)

O<sub>2</sub>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프로그램 평가지

O<sub>4</sub>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X<sub>1</sub> : 탈북청소년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 다. 측정 도구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다문화 인식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측정도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표 1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2. 측정도구

번호	측정 변인	측정 도구	문항수	하위영역
1	호감도	김혜숙(200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경화(2012)가 사용한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척도	1	없음
2	정서	김혜숙(2002)이 개발한 척도를 양계민, 정진경(2005)이 수정 보완한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척도	15	- 부정적정서 - 긍정적정서 - 연민
3	다문화 인식	김나영(2012)이 개발한 청소년용 다문화 인식 척도	20	-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 다양한 문화에 대한 민감성/비차별 -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 1)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혜숙(2001)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김경화(2012)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좋아한다’(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응답가능 범위는 1점에서 7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주민에 대해 보다 많은 호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 2)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는 김혜숙(2002)의 북한 사람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를 양계민과 정진경(2005)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부정적인 정서’로 신뢰도는  $\alpha=.93$ 였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주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하위요인은 ‘긍정적인 정서’로 신뢰도는  $\alpha=.84$ 였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탈

북주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하위요인은 ‘연민’으로 신뢰도는  $\alpha=.71$ 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주민에 대해 불쌍하고 가련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세 번째 하위요인인 ‘연민’이 응답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긍정-부정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척도는 전체 응답점수가 아닌 각 요인별 점수로 연구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

표 13.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척도

하위 영역	측정 변인	신뢰도 계수
부정적인 정서	1, 2, 3, 7, 8, 10, 15	.93
긍정적인 정서	6, 9, 11, 12, 13, 14	.84
연민	4, 5	.71

### 3) 다문화 인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김나영(2012)이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수준을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청소년용 다문화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인식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으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과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하위요인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민감성/비차별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에 대한 비차별적인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하위요인은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으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94$ 로 나타났다.

표 14. 다문화 인식

하위 영역	측정 변인	신뢰도 계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1, 2, 3, 4, 5, 6, 7, 8	.94
다양한 문화에 대한 민감성/비차별	9, 10, 11, 12, 13, 14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15, 16, 17, 18, 19, 20	

## 라. 자료처리 및 분석

### 1) 양적 분석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들의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0.0을 통해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다문화 인식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였다.

둘째, 각 집단의 표본이 15명 이상이기 때문에 모수통계 활용이 가능하여 모수통계 방법 중 하나인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수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를 공변량분석 하였다. 공변량분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여 프로그램만의 영향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통계방법으로 판단하였다(이윤로, 유시순, 2011).

셋째,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지와 회기별 평가를 통해 시범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 2) 질적 분석

본 연구의 통계적 검정에 따른 양적 분석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외부 프로그램 지도자 1인에 대한 심층면접과 학계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데 활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 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먼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다문화 인식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집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가.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M=5.37, SD=.16)은 통제집단의 평균(M=4.73, SD=.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 사전-사후 점수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았지만 사전 탈북 주민에 대한 호감도를 통제한 후 수정된 사후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를 비교했을 때도 실험집단이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15.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사전-사후 기술통계 분석결과

영역	집단	사전		사후		교정점수	
		M	SD	M	SD	M	SD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실험집단 (n=25)	4.56	.21	5.42	.22	5.37	.16
	통제집단 (n=26)	4.38	.24	4.68	.17	4.7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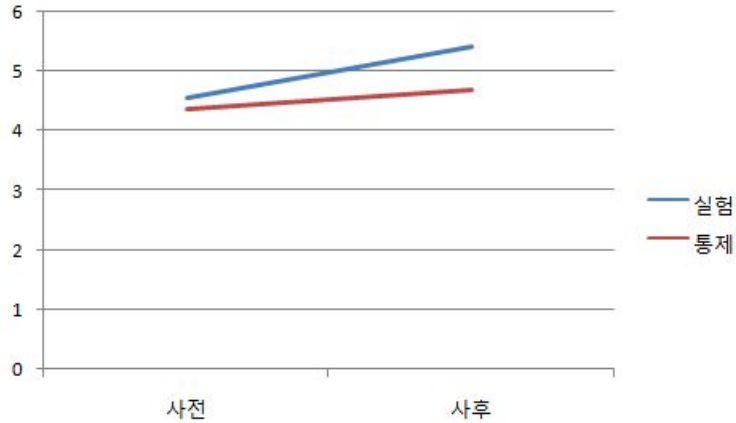


그림 4.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사전-사후 평균변화

두 집단 간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675, p=.005$ ).

표 16.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의 공변량 분석결과

변인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탈북주민에 대한 호감도	공변량	17.624	1	17.624	29.188	.000
	집단	5.238	1	5.238	8.675**	.005
	오차	28.982	48	.604		
	전체	53.488	50			

\*\*  $p < .01$

## 나.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연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균( $M=10.23, SD=.69$ )은 통제집단의 평균( $M=13.16, SD=.68$ )보다 낮게 나타났다. 탈북 주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실험집단 평균( $M=21.73, SD=.64$ )이 통제집단의 평균( $M=19.65, SD=.6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한 탈북 주민에 대한 연민은 실험집단의 평균(M=4.38, SD=.31)이 통제집단의 평균(M=5.60, SD=.31)보다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전 점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수정된 사후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부정적인 정서는 통제집단 보다 낮고 긍정적인 정서는 높게 나타났다. 연민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 사전-사후 기술통계 분석결과

영역	집단	사전		사후		교정점수	
		M	SD	M	SD	M	SD
부정적 정서	실험집단 (n=25)	13.00	1.15	10.36	1.01	10.23	.69
	통제집단 (n=26)	12.62	.87	13.03	.93	13.16	.68
긍정적 정서	실험집단 (n=25)	19.72	.91	22.20	1.19	21.73	.64
	통제집단 (n=26)	18.69	.69	19.19	.67	19.65	.63
연민	실험집단 (n=25)	5.36	.36	4.00	.40	4.38	.31
	통제집단 (n=26)	6.69	.38	5.96	.33	5.6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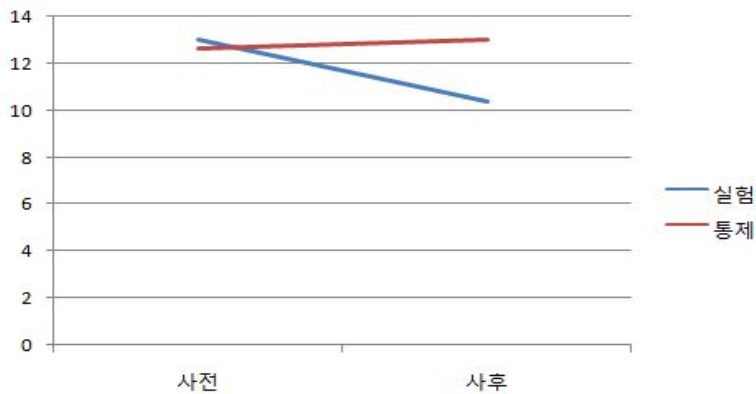


그림 5. 탈북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 사전-사후 평균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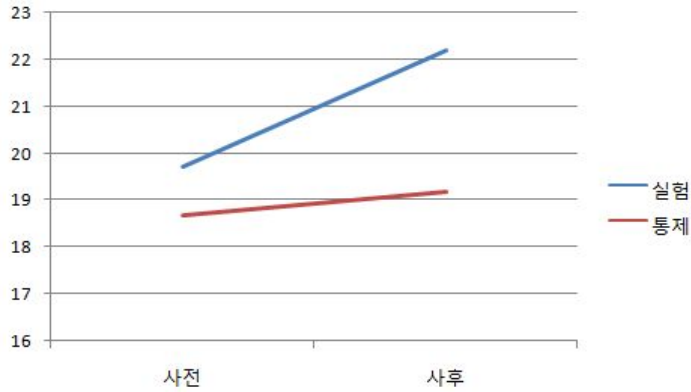


그림 6. 탈북주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 사전-사후 평균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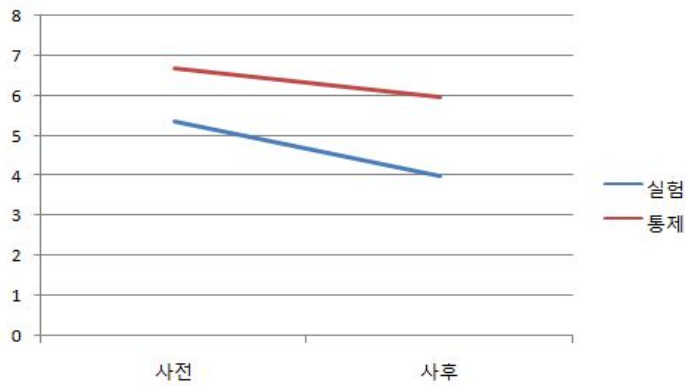


그림 7. 탈북주민에 대한 연민 사전-사후 평균변화

두 집단 간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 정서( $F=9.160, p=.004$ ), 긍정적 정서( $F=5.278, p=.026$ ), 연민( $F=7.332, p=.009$ ) 모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탈북주민에 대한 정서의 공변량 분석결과

변인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부정적 정서	공변량	601,125	1	601,125	50,216	.000
	집단	109,647	1	109,647	9,160**	.004
	오차	574,594	48	11,971		
	전체	1266,734	50			
긍정적 정서	공변량	660,410	1	660,410	64,479	.000
	집단	54,057	1	54,057	5,278*	.026
	오차	491,629	48	10,242		
	전체	1267,333	50			
연민	공변량	52,345	1	52,345	22,714	.000
	집단	16,896	1	16,896	7,332**	.009
	오차	110,616	48	2,305		
	전체	212,000	50			

\*  $p < .05$  \*\*  $p < .01$

#### 다. 다문화 인식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 $M=78.70$ ,  $SD=1.58$ )은 통제집단의 평균( $M=72.25$ ,  $SD=1.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 인식에 있어서 사전-사후 점수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았지만 사전 다문화 인식 점수를 통제된 후 수정된 사후 다문화 인식 점수를 비교했을 때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19. 다문화 인식에 대한 사전-사후 기술통계 분석결과

영역	집단	사전		사후		교정점수	
		M	SD	M	SD	M	SD
다문화 인식	실험집단 (n=25)	71.63	2.30	79.60	2.76	78.70	1.58
	통제집단 (n=26)	69.73	2.08	71.38	2.33	72.25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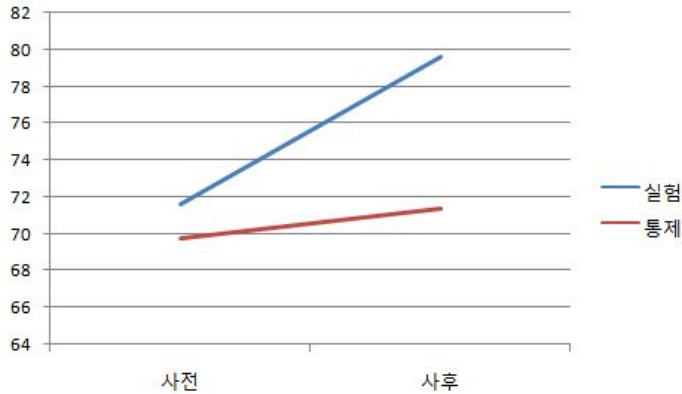


그림 8. 다문화 인식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변화

두 집단 간 다문화 인식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인식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439$ ,  $p=.006$ ).

표 20. 다문화 인식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변인	분산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다문화 인식	공변량	5099.762	1	5099.762	81.586	.000
	집단	527.484	1	527.484	8.439**	.006
	오차	3000.392	48	62.508		
	전체	8960.353	50			

\*\*  $p < .01$

## 2. 참가자 만족도 평가 및 심층면접

### 가. 참가자 만족도 평가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2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지를 배포하고, 문항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는지 대한 질문

에 대해 전체 중 92%(23명)가 ‘매우 그렇다’고 평가했으며, 8%(2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쉬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전체 청소년의 100%(25명)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본 프로그램의 이해용이성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성, 유익성, 활용성, 추천의향의 정도에 대해서도 참여자 전원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본 프로그램의 목적부합성, 유익성, 활용성, 추천의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청소년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21. 시범운영 참여청소년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단위 : 명)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0 (0.0)	2 (8.0)	23 (92.0)	4.92	25
2.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0 (0.0)	0 (0.0)	0 (0.0)	0 (0.0)	25 (100.0)	5.00	25
3.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0 (0.0)	0 (0.0)	25 (100.0)	5.00	25
4.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나요?	0 (0.0)	0 (0.0)	0 (0.0)	0 (0.0)	25 (100.0)	5.00	25
5. 프로그램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0 (0.0)	0 (0.0)	0 (0.0)	0 (0.0)	25 (100.0)	5.00	25
6. 프로그램이 다른 또래상담자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하나요?	0 (0.0)	0 (0.0)	0 (0.0)	0 (0.0)	25 (100.0)	5.00	25
7.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0 (0.0)	0 (0.0)	0 (0.0)	0 (0.0)	25 (100.0)	5.00	25

한편,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들어가기’ 단계에 대해서는 96%(24명)의 참여자들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4%(1명)의 참여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회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96%(24명)의 참여자들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4%(1명)의 참여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회기 프로그램은 참여자 전원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3회기 프로그램은 84%(21명)

의 참여자들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4명)의 참여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4회기는 92%(23명)의 참여자들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8%(2명)의 참여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에 대해 ‘매우 나빴다’(1점)부터 ‘매우 좋았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한 결과 참가자 전원이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하였다.

표 22.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객관식)

(단위 : 명)

회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응답수
들어가기	0 (0.0)	0 (0.0)	0 (0.0)	1 (4.0)	24 (96.0)	4.96	20
1회기 낯설 하나	0 (0.0)	0 (0.0)	0 (0.0)	1 (4.0)	24 (96.0)	4.96	20
2회기 낯설 둘	0 (0.0)	0 (0.0)	0 (0.0)	0 (0.0)	25 (100.0)	5.00	25
3회기 만남	0 (0.0)	0 (0.0)	0 (0.0)	4 (16.0)	21 (84.0)	4.84	25
4회기 성장	0 (0.0)	0 (0.0)	0 (0.0)	2 (8.0)	23 (92.0)	4.92	25

표 23.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단위 : 명)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나요?	0 (0.0)	0 (0.0)	0 (0.0)	0 (0.0)	25 (100.0)	5.0	25

## 나. 참가자 심층면접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또래상담자 25명 중 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질문 내용은 표 24와 같다. 질문은 크게 프로그램의 내용 활용성, 운영 적절성, 효과성으로 구성되었다.

표 24. 심층면접 질문 내용

구성	질문내용
내용 활용성	‘도입’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낮셈①’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낮셈②’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만남’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성장’ 영역에서 도움(유익)이 되었던 부분과 어려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운영 적절성	본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은 어떤가요?(효과적인 점,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본 프로그램의 교육 시간은 어떤가요?(효과적인 점,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본 프로그램의 교육 방법은 어떤가요?(효과적인 점,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효과성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본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1) 내용활용성

#### ① 도입

##### ▷ 프로그램효과 평가

##### • 북한에 대한 OX 퀴즈

- 대부분 모르는 질문들이어서 신선하고 유익했음

#####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 북한에 대한 OX 퀴즈

- 정답은 있지만 해설이 풍부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음

#### ② 낮셈①

##### ▷ 프로그램효과 평가

##### • 전체

- 우리의 고정관념 및 편견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음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도입활동

- 말 전하기 게임이 재밌었으나 이야기가 많이 와전되어서 우리가 게임을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했었음. 당연히 와전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있는 그대로 본다?

- 활동의 목적이 우리가 보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는 것인데 사전 정보가 종교, 부모의 국적이라 편견에 집중하기 보다는 참여자 개인적인 종교에 집중하는 등 목적과의 연결성을 찾기 어려웠음. 따라서 예를 들면 세 번째 그림에서 탈북청소년이 울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 같음

• 있는 그대로 본다!

- 음비토나 교수 동영상 너무 길었음. 짧게 축약해서 필요한 부분만 재생했으면 함

③ 낮섬②

▷ 프로그램효과 평가

•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 백조가 된 오리의 모습을 통해 오리의 내부적, 외부적 노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우리도 각자 숨기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공감이 많이 되었음. 친구들이 가장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논의를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이었음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미운 오리 새끼 찾기 게임

- 게임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을 많이 소요했는데, 정작 신분노출을 어려워하는 탈북청소년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활동의 의미가 크게 와 닿지 않았음. 다른 게임을 하거나 현재 우리 각자가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음

④ 만남

▷ 프로그램효과 평가

• 훈민정음 놀이

- 우리가 외래어 및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에 놀랐고, 이런 부분들이 탈북청소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이 많이 가고 굉장히 재밌었음

- <다알쥬> 전략 복습하기
  - 실제 탈북청소년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가가지 않거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탈북 친구들이 바라는 다가오는 방법’, ‘탈북 친구들이 바라는 도움’을 구성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음. 특히 친구들이 평범하게 남한 친구들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보가 신선했음
- 역할극
  - 정말 재밌었고 탈북이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
-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다알쥬> 전략 복습하기
  - 교육 내용이 많은 편이라 Tip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음
- 역할극
  - 대사를 다양하게 많이 작성해주면 역할극이 풍부할 것 같음. 내향적인 친구들은 역할극을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함
  - ‘박무관’의 역할이 2명인데 아무 역할이 없어보여서 부러웠음. 굳이 2명을 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 ‘이놀림’의 속마음 대사가 너무 이상한 친구 같았음. 속마음 대사를 ‘빨갱이라고 놀리니 반응하는 탈북이를 보는 것이 완전 재밌네. 그리고 친구들도 나를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네?’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음

## ⑤ 성장

- ▷ 프로그램효과 평가
- 성격관점 바꾸기
  - 친구의 단점을 칭찬해보는 시간이 색다르고 좋았음
- 마무리 활동 ‘소감 나누기’
  - 지금까지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공유해보는 시간이 프로그램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가 정리되고 좋았음
-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성격관점 바꾸기
  - 웹교재의 부정적인 느낌의 성격특성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보는 시간을 먼저 진행하고 친구의 단점을 칭찬하니 거기에 한정된 느낌이 있었음. 친구의 단점을 칭찬하는 것을 먼저 활동하여 두 활동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음.



- 웹교재 내용에서 '변덕쟁이다.'→'에너지가 풍부하다.'로 바꾸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워 보임. 삭제했으면 함
-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 조셉김 동영상이 너무 길었음. 짧게 축약해서 필요한 부분만 재생했으면 함

## 2) 운영 적절성

### ① 교육대상

#### ▷ 프로그램효과 평가

- 또래상담자의 다문화인식 및 수용성을 증가시킨다는 취지에서 대상은 적절해보임

####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반드시 기존의 또래상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모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② 교육시간

#### ▷ 프로그램효과 평가

- 활동이 많고 재밌어서 시간은 적당했음

####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하루에 4회기를 한 번에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함

### ③ 교육방법

#### ▷ 프로그램효과 평가

##### • 교육 및 활동

- 교육 및 활동이 적절히 배분되어 좋았음. 특히 '만남'의 장에서 정보를 주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라 무조건 활동이 많아야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함

####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 교육 및 활동

- 게임과 같은 활동을 하고난 뒤 활동의 목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 동영상 시청

- 동영상이 많은 편이라 쉬는 시간에 재생해서 볼 사람은 보고 쉴 사람은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3) 효과성

#### ▷ 프로그램효과 평가

- 만약 주변에 탈북청소년이 있다면 배운 점대로 다가가고 알아보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느꼈음

#### ▷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도입에 나왔던 OX 퀴즈처럼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상식을 프로그램 회기 사이사이 중간에 조금씩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음

### 4) 청소년 심층면접 시사점

심층면접 결과, 본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하기에 전반적으로 현장활용성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또래상담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내용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도입, 낯섭①, 낯섭②, 만남, 성장으로 구분하여 회기를 구성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탈북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도입’의 경우 대부분 모르는 질문들이어서 신선하고 유익했다. 다만 해설을 풍부하게 하여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풍성하게 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다음으로 ‘낯섭①’의 경우 또래상담자 자신의 편견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있는 그대로 본다?’의 활동에서 정보에 종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보다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낯섭②’의 경우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활동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되었다. 실제로 또래상담자 본인들도 각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가장 공감을 했던 장이라고 평가되었으나, 현재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에 대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있었다.

다음으로 ‘만남’의 경우 ‘훈민정음 놀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외래어 및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느끼고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에 왔을 경우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 경험하였다. 또한 ‘〈다알죠〉 전략 복습하기’에서 나왔던 실제 탈북청소년들의 인터뷰 정보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역할극’에서 대사를 다양하게 많이 구성해서 주면 역할극이 더 풍부해질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성장’의 경우 ‘성격관점 바꾸기’를 통해 친구의 단점을 칭찬해보는 시간이 색다르고 좋았으며, 마지막 회기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나누는 시간이 어떤 점을 느꼈는지

함께 공유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성격관점 바꾸기’에서 실제 예시활동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실제 친구의 단점을 칭찬으로 바꿀 때 예시활동에 국한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육과 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육과 활동이 적절히 배분되어 좋았다고 했으나, 게임과 같은 활동을 하고난 뒤 활동의 목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회기별 동영상은 많은 편이라 동영상을 짧게 축약해서 필요한 부분만 재생하거나 쉬는 시간에 재생하여 지루하지 않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본 프로그램은 만약 주변에 탈북청소년이 있다면 배운 점대로 다가가고 알아보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보고하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3.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개발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또래상담·탈북청소년 관련 전문가 3인에게 감수를 받았다. 첫 번째 전문가는 부산 소재 국립대학의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서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등 북한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두 번째 전문가는 북한·통일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대학원대학교 교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문가는 본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외부지도자로서, 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또래상담을 비롯한 청소년 집단상담의 경험이 풍부한 대학상담센터 연구원이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감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을 매뉴얼 상에 명확히 안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남한청소년, 탈북청소년 구분 없이 또래상담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이에 대한 매뉴얼 상에 명확한 안내가 없어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다양한 이주배경을 반영한 풍부한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북한출생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무연고 탈북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탈북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제시와 각 특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또래상담자의 활동 범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래상담자는 전문적인 상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래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내용에는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상담의 경우에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에 또래상담자의 활동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또래상담자가 다룰 수 있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연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탈북청소년들이 겪는 주요 문제가 학교부적응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또래상담자가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담자로서의 비밀보장, 역할한계 등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탈북청소년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내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탈북청소년들은 대부분 남한의 학교로 입학하게 되는 경우, 자신보다 어린 또래들과 생활을 한다. 이러한 나이 차이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은 또래상담자들의 도움을 불편하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또래상담자들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스스로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북한이탈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명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탈북민’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탈북청소년’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도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각 회기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각 회기별 6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간 내에 다루기에는 현재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필수·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각 회기 별 감수로는 본 프로그램 1회기에서 다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회기는 또래상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자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회기는 역할극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4회기는 다소 어려운 용어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보다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4.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참가자 만족도 평가 및 심층면접, 전문가 감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감수를 진행한 전문가 모두 본 프로그램의 목표와 취

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프로그램이 갖는 기본 구성요소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초안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의 대상, 어려운 용어의 수정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과 전문가 감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도교사들과 또래상담자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도록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들어가기 부분에서 본 프로그램의 대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4회기 성장에서 다루는 심리학용어를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게 수정하였다.

둘째, 전문가 감수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주배경에 따라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3회기 만남의 역할극에서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의 이주배경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셋째, 전문가 감수결과, 또래상담자들이 다룰 수 있는 사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밀보장 등 윤리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도입 부분에서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영역 및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였다. 또한 전미또래상담전문가협회(NAPPP)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서명하고, 마지막 회기에 프로그램 이수증을 수여하면서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선서를 하는 시간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제안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회기의 역할극에 해당 사례를 추가하여 또래상담자들이 자연스럽게 해당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문가 감수결과 탈북청소년의 경우 또래들의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스스로 강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들이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한 역경들을 강점으로 승화(Post-Traumatic Growth)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당초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북한이탈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었으나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여섯째, 전문가 감수결과 현재 구성되어 있는 회기별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대하여 60분에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구성된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성을 고려하여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학교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학교 수업시간 단위와 유사하도록 1회기 시간을 50분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회기별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최종 수정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25에 제시하였다.

표 25.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내용

단계	시간	목표	세부 내용
1회기 낮섭①	전체 60분 (필수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고정관념 및 편견 점검하기</li> <li>- 편견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험하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필수) 프로그램 목적 및 북한에 대한 이해(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 내용 소개</li> <li>•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사례관리, 비밀유지 설명</li> <li>• 북한에 대한 OX 퀴즈</li> </ul> </li> <li>2. (선택) 말 전하기 게임(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카드를 활용하여 또래상담자 간의 말 전하기 게임을 통해 처음 만들어진 문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해봄</li> </ul> </li> <li>3. (필수) 있는 그대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눈의 안경(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서로 다른 그림카드에 그려진 아이의 배경을 설명한 후, 그림에 그려진 아이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해해 봄</li> <li>: 서로 다른 배경에 따라 그림에 그려진 아이의 감정에 대해 편견을 갖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봄</li> </ul> </li> <li>• 내 안경은 색안경(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이 없는 사람의 사진 3개를 제시하고 각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일지 맞추어 봄</li> <li>: &lt;편견이 부른 비극&gt; 동영상(4'13")을 시청하고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봄</li> </ul> </li> </ul> </li> <li>4. (필수) 있는 그대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견과 함께하기(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옴비토나 교수의 사례를 통해 편견 없이 타인을 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봄</li> </ul> </li> <li>• 편견과 거리두기(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개의 명언을 제시하여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명언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눔</li> <li>: 선택한 명언을 통해 편견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법 생각해보기</li> </ul> </li> </ul> </li> </ol>
2회기 낮섭②	전체 60분 (필수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의 신분 노출에 대한 어려움 이해</li> <li>- 문화수용성 이해</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필수/선택) 나는 미운 오리 새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미운오리 새끼의 독백(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교재에서 나오는 나레이션을 통해 미운 오리새끼의 마음을 상상해봄</li> </ul> </li> <li>• (필수) 미운 오리새끼 찾기 게임(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오리, 주인, 백조)이 정해진 카드를 무작위로 뽑아 각각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연기함. 주인 역할을 하는 조원은 오리와 백조 중 진짜 오리를 찾아 봄</li> <li>: 게임을 끝나고 난 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어떠한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 해봄, 특히 오리의 역할을 맡은 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숨겨야 했을 때의 기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 봄</li> </ul> </li> <li>• (선택) 미운 오리새끼 마음 속 들어가기(10분)</li> </ul> </li> </ol>

2회기 낮습②	전체 60분 (필수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의 신분 노출에 대한 어려움 이해</li> <li>- 문화수용성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상황을 제시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오리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해 봄</li> <li>2. (필수) 나는 미운오리새끼 그리고 백조(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조가 된 오리의 모습을 통해 오리의 내부적, 외부적 노력에 대해 살펴봄</li> <li>: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간 접촉을 통한 문화 수용성 증진에 대해 이해하고, 다문화사회 리더로서 다문화역량 증진 필요성에 대해 이해함</li> </ul> </li> </ul>
3회기 만남	전체 90분 (필수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 및 남한 청소년의 상호 이해</li> <li>- 도움 주는 친구 되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필수)훈민정음 놀이(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여 1분 동안 대화를 통해 외국어 및 외래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봄</li> </ul> </li> <li>2. (선택)&lt;다알조&gt; 전략 복습하기(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가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이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래상담자로서 탈북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봄</li> </ul> </li> <li>•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시계 전략을 통해 탈북청소년과의 대화, 관찰, 정보수집 과정을 거쳐 탈북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봄</li> </ul> </li> <li>• 조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에 대한 해결방법을 브레인 스토밍해보고 각각의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얘기해 봄</li> </ul> </li> </ul> </li> <li>3. (필수)역할극을 통한 상호이해(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사례 중 1가지는 역할극 필수, 나머지 2사례는 선택</li> <li>• 역할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이 학교적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3가지 사례를 탐색함</li> <li>: 사례에 대한 역할극 카드를 무작위로 뽑아 카드의 앞면에 있는 상황 및 대사에 맞춰 역할극을 시연해 봄</li> <li>: 카드 뒷면에 있는 속마음 대사를 큰 소리로 읽은 후, 역할극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공유해 봄</li> <li>: 향후 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방향을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고, 역할극 해봄</li> </ul> </li> <li>• &lt;청춘시대&gt; 동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시청을 통해 탈북청소년뿐 아니라 남한청소년들 역시 친구들 관계에서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들을 이야기 해보고 공유해 봄</li> </ul> </li> </ul> </li> </ol>
4회기 성장	전체 70분 (필수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성격특성 이해하기</li> <li>- 역경 속 성장 경험 나누기</li> <li>- 다문화 역량 증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필수)성격관점 바꾸기(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교재를 통해 부정적인 느낌의 성격특성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봄</li> </ul> </li> <li>2. (필수)자세히 보아야 예쁘다(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롤링페이퍼를 통해 자신의 성격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보고 소감 나누기</li> </ul> </li> <li>3. (필수)거친파도가 훌륭한 뱃사공을 만든다(10분)</li> </ol>

4회기 성장	전체 70분 (필수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성격특성 이해하기</li> <li>- 역경 속 성장 경험 나누기</li> <li>- 다문화 역량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셉킵 동영상을 통해 역경을 통해 성장을 할 수 있음을 공유</li> <li>•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점 찾아보기</li> <li>4. (선택)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20분)</li> <li>• 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조원들과 함께 나의 가치에 대해 선포하는 의식을 가짐</li> <li>5. (필수)또래상담자 행동다짐 선서(15분)</li> <li>• 소감 나누기</li> <li>• 탈북청소년 또래상담자 선서</li> </ul>
-----------	--------------------------	--	--



## V. 요약 및 논의

###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심층면접, 탈북청소년 심층면접, 남한청소년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주요 구성원리 및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구성원리 및 구성요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또래상담자는 시범운영 전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 북한이탈주민에 정서, 청소년 다문화 인식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 및 과정적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자 관점의 평가와 참가자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전문가들의 감수를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신을진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적용하여 기획, 구성, 실행 및 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획단계에서는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였다. 먼저,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원인을 조사하였고, 특히,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남한청소년들의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적응과정에서 남한친구들과의 접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해내어 탈북청소년이 학교에서 남한청소년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 접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한청소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기위해 남한청소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심층면접과 남한청소년 포커스그룹인터뷰 뿐만 아니라 지도교사 심층면접을 통해서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밝히고,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현장에서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인터뷰 결과, 탈북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에서의 어려움, 특히 남한청소년들과의 접촉경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남한청소년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은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지만, 남한청소년들은 이러한 신분노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적응에 성공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또래상담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남한청소년들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문화이해를 높이기 위해 ‘들어가기’ 회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들어가기’ 회기에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습득을 통해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 접촉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또래상담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 총 4회기로 구성되었다.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과의 접촉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 남한청소년과의 친밀한 관계형성, 적극적 관계형성을 통해 원만한 친구관계를 이루거나 탈북 청소년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처럼 탈북 청소년의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을 인식하고, 탈북청소년들의 신분노출의 어려움 및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접촉을 이룰 필요가 있다. 나아가 또래상담자가 탈북청소년들과 긍정적인 접촉을 가짐으로써 탈북 청소년 또한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여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 및 자기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근거하여, 1회기(‘낯설 1’ 회기)에서는 남한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편견 인식하기, 2회기(‘낯설 2’ 회기)에서는 탈북 청소년이 갖고 있는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문화 수용성 함양하기, 3회기(‘만남’ 회기)에서는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주기, 4회기(‘성장’ 회기)에서는 성장하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셋째,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래상담자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통해 탈북청소년들과 긍정적으로 접촉하고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넷째,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은 탈북 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으로 구성한다. 인터뷰 결과, 기존 탈북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탈북청소년들에게 신분노출의 불편함으로 탈북청소년들의 참여유도에 실패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다는 점에서, 남한청소년 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들 또한 또래상담자로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남북한 또래상담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한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나 문제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가능하다. 이에, 현실적으로 남한또래상담자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탈북 청소년들이 많은 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들이 함께 본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이수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도출된 구성원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하위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탈북청소년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인식하기, 둘째,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셋째,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 이해하고 도움주기, 넷째, 탈북청소년의 강점 이해 및 삶의 의미 이해. 이와 같은 목표를 토대로 총 4회기(60분)의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실행과 평가단계에서는 3개교에서 또래상담자 51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도자들은 연구자 3명과 또래상담 지도교사 1명이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상담심리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3년 이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들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정서, 다문화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5명의 실험집단과 26명의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와 참여자 관점평가(종합평가, 회기별 평가), 참여자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과 지도자용 지침서가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검수를 받았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정서’, ‘다문화 인식’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도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집단의 북한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프로그램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근거로 만들어 진 바, 탈북 청소년과의 친밀한 접촉을 할수록 탈북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호감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김정화(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청소년)에 대한 정서의 경우,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부정적인 정서는 통제집단 보다 낮고 긍정적인 정서는 높게 나타났다. 연민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의 정서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정서, 연민에 대한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집단은 북한이탈주

민(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는 증가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연민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프로그램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바, 탈북청소년을 자주 접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안학교 교사집단이 탈북청소년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집단이나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접촉한 보호담당 형사들보다 긍정적인 정서가 높고, 부정적인 정서와 연민의 정서가 낮았다는 연구결과(양계민, 정진영, 2005)와 일치한다.

셋째, 다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으로하여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다문화 인식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인식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데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프로그램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둔 바,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다문화주의 신념이 부적 상관이 있다는 김혜숙 외(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성과 및 과정적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참여자관점의 프로그램 평가 및 참여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및 회기별 평가 결과, 92%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며 나머지 8%로의 청소년들도 '만족'한다고 답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 쉬웠는지',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는지', '목적에 잘 맞게 만들어 졌는지', '유익했는지', '활용되기를 원하는지',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100%의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고 평가하여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와 비슷하게, 프로그램의 단계별 만족도에서도, 들어가기부터 1·2·3·4회기 모두에서 100%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구성, 즉, 도입, 1회기 낯설I, 2회기 낯설II, 만남, 성장 단계의 구성이 흥미롭고 적합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각 파트에서, 자신의 편견을 이해하고, 탈북청소년의 신분 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탈북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성격단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신기했다는 평가 내용은 각 단계의 하위 목표와 유사하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감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첫째, 탈북청소년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을 매뉴얼 상에 명확히 안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북한출생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무연고 탈북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반영한 풍부한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탈북청소년을 돕는 과정에서 또래상담자는 전문적인 상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래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내용에는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넷째, 탈북청소년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내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북한이탈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명을 ‘탈북청소년 또래상담프로그램’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 각 회기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구분하여 필수·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각 회기 별 감수로는 1회기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향, 2회기는 영상자료 추가, 3회기는 역할극의 상황의 구체화, 4회기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효과성 평가, 참여자 관점의 프로그램 평가 및 참여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해 프로그램의 최종안에 대한 수정방향을 수립하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바꾸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 감수 등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하위목표를 확정하였다. 1회기, 탈북청소년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인식하기, 2회기, 탈북청소년의 신분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3회기, 탈북 청소년의 접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주기, 4회기, 탈북청소년의 역경 속 성장 경험을 이해하고 성장하기. 더불어, 선택 및 필수 프로그램 구분, 다양한 사례 첨가, 또래상담 역할 교육 추가를 하였으며, 프로그램명을 ‘북한이탈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현장의 또래상담지도자 및 교사들이 본 프로그램을 원활히 보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기본원리와 효과성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지침서 내에 첨부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면접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이 결정되었고, 이 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개발하는 절차를 통해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탈북청소년 학교적응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과의 접촉에 초점화하여 학교적응과정을 밝힘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중도탈락을 감소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과 관련하여 문제 및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있으나,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초

점화하여 과정 및 원인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최근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교중도탈락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구성요인 및 원리를 체계적으로 추출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초점화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현황 및 원인, 남한청소년의 편견 및 다문화 수용성,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고찰하였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의 적응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여, 탈북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의 남한청소년과의 접촉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고, 지도교사 심층면접과 남한청소년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접촉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해서 밝혔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과 원리를 개발하였다.

셋째, 또래상담자들로 하여금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높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또래상담자들이 탈북청소년과 긍정적인 접촉을 유도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할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전문가 지문, 시범운영 참여자 인터뷰,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장 적용 및 활용가능성이 있는 높은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탈북청소년 연구 분야 학자와의 공동연구, 탈북청소년 전문가 및 또래상담 지도자로부터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지문,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안, 시범운영에 참여한 또래상담자들 대상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주요 수혜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주 수혜자인 남한청소년(또래상담자)과 탈북청소년, 그리고 프로그램을 주로 학교에 보급할 지도교사를 대상을 심층면접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수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 대상으로 남한청소년 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의 대상은 모두 남한청소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보급 시 대부분의 또래상담자가 남한청소년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안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바, 탈북청소년이 포함된 집단을 대상

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구분용, 구혜영, 이명우 (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구분용, 금명자 (2000).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경험세계**.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도전과제**, 서울: 청소년상담원.
- 교육부 (2009). **탈북학생통계**. <http://www.moe.go.kr/>
- 교육부 (2014). **탈북학생통계**. <http://www.moe.go.kr/>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정책적함의. **한국청소년개발원**, 10(4), 163-186.
- 김경미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준, 오성배, 강태중, 정유성, 이부미, 조정아, 이하정, 서은혜 (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국현 (2003).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통일연구논총**, 12(2), 141-183.
- 김나영 (2012). **청소년용 다문화 인식 척도 개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정, 서미, 배주미, 김래선, 양대회, 성벼리, 전미진, 박양민, 류아영, 이은별, 홍예진 (2015).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영하 (2010). 다문화사회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21, 223-247.
-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 조순실 (2009).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6(3), 259-286.
- 김혜련 (2007).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2, 24-34.
- 김혜숙 (2002).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9, 83-101.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 정체성, 문화적응



-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남북하나재단 (2012). **2012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또래상담 홈페이지 (2016). <http://www.peer.or.kr/>
- 류부열 (2007). **또래상담자 훈련이 고등학생의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영임, 길은배, 최현보 (2013).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류정아, 조영기, 현보라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보라 (2008). **또래상담자 훈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건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백향하 (2004). **고등학생의 또래상담 활동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183-211.
-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400&efYd=20160302#0000>
- 서미, 천희선, 이혜민, 윤민지, 김승윤, 안지영 (2014).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소원미 (2003). **또래상담 훈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을진, 김창대, 김형수,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신희정, 박선아 (2009). 새터민 대학생의 체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3(1), 101-130.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97-115.
- 양계민, 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

- 소년연구, 19(2), 333-358.
-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 (2008).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미진, 서미, 주지선, 김혜영, 전환희, 성버리 (201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연문희, 강진령 (2002). **학교상담-21세기 학생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85-196.
- 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2013). **탈북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건남, 김은영, 이기용 (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14.
- 이금순, 강신창, 김명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이기영 (2002).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기영, 김민경, 조재희, 최지원 (2014).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정책 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무연고, 제3국 출생, 남한출생 자녀를 중심으로**. 서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미지 (2006).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남한 교육 적응실태와 개선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23-324.
-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4). **또래상담**. 서울: 학지사.
- 이상희, 이지은, 노성덕 (2000). **단계별 또래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선아 (2016. 10.). **탈북민 3만시대..아직은 어려운 따로 또 같이**. YTN 주요뉴스. 서울: YTN.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수정, 양계민 (2013). 북한이탈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나한출신 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1), 410-414.
- 이향규 (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1-17.
- 장문장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195-234.
- 전선숙 (2010).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자기표현능력과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미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남한청소년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22, 301-319.
- 정미혜, 김종훈 (2008). 또래상담자의 멘토활동이 초등학교 배척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7(1), 185-203.
- 정병호 (2005). **남북한의 이질적 근대화 경험과 미래 사회문화 통합을 위한 중장기 실천 과제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 정순미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남한청소년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22, 301-320.
- 정애리 (2014). **북한이탈청소년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정임, 주은선 (2006). 또래상담 활동이 따돌림 경험 학생들의 심리적인 변화에 주는 영향: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2, 1-16.
- 정진경, 양계민 (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85-215.
- 정진경, 최진이, 김성민, 정진현 (2002).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북한 문화이해지**. 서울: 우리교육.
-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7), 33-57.
- 주지선, 조한익 (2014).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6), 2557-2579.
- 채연희, 이현림 (2003). 또래상담 운영이 또래상담자의 자기평가와 학습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1(1), 116-125.
-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탈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9(3), 23-34.
- 최현, 김지영 (1993). **청소년 성격형성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심포지움 발표 논문.
- 최혜숙 (2006).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부 (2014). **북한이탈주민 현황**.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현황**. <http://www.unikorea.go.kr/>
-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제안서 20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a). 2014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결과보고집. 부산: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b). 2015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결과보고집. 부산: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정숙 (2009).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과 적응 방안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nder, J., Zagefka, H., Brown, R., Funke, F., Kessler, T., Amelie, M., Maquil, A., Demoulin S., & Leyens, J.P. (2009). Does contact reduce prejudice or does prejudice reduce contact? A longitudinal test of the contact hypothesis among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in three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843-856.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1999).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Americans :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77, 135-149.
- Carr, R. A. (1993). Peer helping in Canada. *The Peer Facilitator Quarterly*, 11(1), 15-18.
- Cowie, H., & Smith, P. K. (2010). *Peer support as a means of improving school safety and reducing bullying and violence*. In B. Doll, W. Pfohl, J. S. Yoon (Eds). *Handbook of youth prevention science (pp.177-193)*. New York, NY: Routledge.
- David, E. J. R., Okazaki, S., & Saw, A. (2009). Bicultur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11-226.
- Eller, A., & Abrams, D. (2003). Gringos in Mexico: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ffects of language school-promoted contact on intergroup bias. *Group Process & Intergroup Relations*, 6(1), 55-75.
- Ellis, B. H., MacDonald, H. Z., Lincoln, A. K., & Cabral, H. J. (2008). Mental health of Somali adolescent refugees: The role of trauma, stress,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2), 184-193.

- Fantino, A. M., & Colak, A. (2001). Refugee children in Canada: Searching for identity. *Child Welfare, 80*(5), 587-596.
- Gillock, K. L., & Reyes, O. (1999). Stress, suppor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urban, low-income, Mexic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2), 259-282.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 Aldine.
- James, D. C. S. (2009). Coping with a new society: The unique psychosocial problems of immigrant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 67*(3), 98-102.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Kaiser, C. R., & Miller, C. T. (2001). Stop complaining! The social costs of making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254-263.
- Khamphakdy-Brown, S., Jones, L. N., Nilsson, J. E., Russell, E. B., & Klevens, C. L. (2006). The empowerment program: An application of an outreach program for refugee and immigrant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1), 38-47.
- Lin, K. M., Tazuma, L., & Masuda, M. (1979).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ese refugees : Health and mental health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9), 955-961.
- Lombardi, J. S., & Carek, R. (1978). Making the helping network fo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 367.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51-783.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8). How does interpersonal contact reduce prejudice? Meta-analytic tests of three mediator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3*(6), 92-934.
- Pettigrew, T. F., Christ, O., Wagner, U., & Stellmacher, J. (2007). Direct and indirect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A normative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 411-425.
- Schweizer, R., Melville, F., Steel, Z., & Lacherez, P. (2006). Trauma, post-migration living difficultie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in resettled Sudanese refuge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2), 179-187.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Taush, N., Hewstone, M., Kenworthy, J., Cairns, E., & Christ, O. (2007). Cross-Community Contact, Perceived Status Differences, and Intergroup Attitudes in Northern Ireland: The Mediating Roles of Individual-level versus Group-level Threats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fication. *Political Psychology, 28*, 53-68.
- Troopp, L. R., & Pettigrew, T. F. (2005). Differential Relationships Between Intergroup Contact and Affective and Cognitive Dimensions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8), 1145-1158.
- Varenhorst, B. B. (1984). *Peer counseling: Past promise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Wright, S. C, Aron, A., McLaughlin-Volpe., & Ropp, S. A.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3-90.

## 부 록

1.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인터뷰 질문지
2. 탈북청소년 인터뷰 질문지
3. 남한청소년 인터뷰 질문지
4.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전)
5.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후)





## [부록 1]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인터뷰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졸업    ② 학사재학    ③ 학사졸업    ④ 석사재학    ⑤ 석사졸업  
⑥ 박사 이상

5. 귀하가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② 대안학교    ③ 청소년단체(단체명:                    )  
④ 탈북청소년관련단체 (단체명:                    )  
⑤ 기타 (                    )

6. 귀하는 탈북청소년을 지도한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7. 귀하가 주로 지도한 탈북청소년은 어떤 연령대입니까?

- ① 초등학생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⑤ 기타(                    )

### [도입 질문]

1. 귀하가 주로 지도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은 누구인가요?

1-1. 어떤 과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지?

2. 귀하의 문화적 orientation은 무엇인가요(탈북자인지, 아니면 남한사람인지)?

- 2-1. (탈북자라면) 언제 남한에 정착했는지? 탈북자인 경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 2-2. (남한사람이라면) 어떤 계기로 탈북청소년들을 교육하게 되었는지? 이런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주요 질문]

3. 귀하가 지도하는 탈북청소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 3-1.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로 힘들어 하는 문제는?
  - 3-2.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힘들어 하는 문제는?
  - 3-3.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4. 탈북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방안은 어떠해야 하는가?
  - 4-1. 탈북청소년의 강점(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4-2.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있어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보람은?
  - 4-3.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4-4. 탈북청소년 교육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4-5. 교육 등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탈북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 4-6. 탈북청소년의 문화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덧붙여 남한청소년의 문화적 수용성(탈북청소년에 대한)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4-7. 탈북청소년의 문화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5.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청소년들과 접촉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5-1.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을 만나기 전에 주로 어떤 인상을 갖나요?
  - 5-2.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청소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나요?
  - 5-3.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5-4. 남한청소년과 만남(접촉, 친해짐)은 탈북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6. 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과 접촉(만남)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7.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
  - 7-1. 귀하가 지도하는 청소년에게 또래가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래의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또래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 7-2. 탈북청소년 또래상담자들은 어떤 역할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 7-3.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누구를 프로그램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탈북 청소년들만? 남한청소년을 포함한 모두?
- 7-4.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 시켜야 할까요?
- 7-5.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 져야 하는가?(보급 대상 기관, 주요 지도자, 프로그램 대상, 참여인원, 집단 형태 등)
- 7-6. 탈북청소년 대상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 [마무리 질문]

8.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9.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부록 2] 탈북청소년 인터뷰 질문지

\*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작성되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이: (            )세, 출생연도 (            )
2. 성별  
① 남    ② 여
3. 학년: (초등, 중, 고등) 학교, (            ) 학년
4.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나요? (            )  
↳ 4-1.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 온지 몇 년이 되었나요? (    )년
5.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나라를 모두 적어주세요.  
(            ,            ,            ,            )
6. 한국 외의 나라에서 학교에 다닌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6-1. 있다면 어느 나라였나요? (            )
7. 한국에서 언제부터 학교를 다녔나요?  
① 초등학교 (    )학년부터    ② 중학교 (    )학년부터    ③ 고등학교 (    )학년부터
8. 대안학교를 다닌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8-1. 있다면 언제였나요? (            )
9.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            )
10.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            )
11.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            )
12. 현재 다니는 학교 외에 탈북자 대상 공동체(예, 탈북자 대상 교회, 탈북자 지원센터 등)에 속해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12-1. 있다면 어느 단체인가요? (            )
13. 한국 문화와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요?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14. 북한 문화와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요?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 [도입 질문]

1.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 과정은 어떠했나요?

## [주요 질문]

2.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경험은 어떠한가?
  - 2-1. 한국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떠했는가? 좋은 점? 어려운 점?(가능하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 2-2. 지금 한국학교를 다니는 것은 어떠한가? 좋은 점? 어려운 점?
  - 2-3. 한국학교에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 2-4. 북한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면, 한국학교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비슷한 점? 다른 점?
3. 남한친구와 만나는(만남) 경험은 어떠한가(어떠했는가)?
  - 3-1. 남한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남한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남한친구들과 만나면서 남한친구들에 대한 인상은 달라졌는가?
  - 3-2. 남한친구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있다면), 무엇인가? 어려운 점이 극복되었다면 어떤 계기로 극복이 되었는가? 극복된 후,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 3-3. 남한친구들과의 만남이 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3-4. 남한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있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가?  
(앞으로 남한친구들이 어떤 도움을 준다면 적응에 도움이 될까요?)
  - 3-5. 남한친구들이 북한친구들(북한이나 남한에서 만난 북한친구들 모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3-6. 남한친구들 중에 가장 친한 친구와 친해진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 친구와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것 때문이었나요?
4. 남한에 있는 북한친구들과 만나는 경험은 어떠했는가?
  - 4-1. 북한친구들과의 만남은 한국생활이나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5.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 5-1. 한국학교나 한국에 적응하는데 있어 또래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 5-2. 학교적응이나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이 된 또래가 있다면 누구인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6.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

6-1. 탈북청소년을 도울 또래상담자의 주요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예. 탈북청소년, 남한 청소년 등)

6-2.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디서 교육되는 것이 좋은가?(예. 학교, 탈북청소년 센터, 복지관 등)

6-3.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 [마무리 질문]

7.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부록 3] 남한청소년 인터뷰 질문지

\*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작성되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이: (            )세, 출생연도 (            )
2. 성별  
     ① 남 ② 여
3. 학년: (초등, 중, 고등) 학교, (            ) 학년
4.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나요? (            )  
     ↳ 4-1.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 온지 몇 년이 되었나요? (            )년
5.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나라를 모두 적어주세요.  
     (            ,            ,            ,            )
6. 한국 외의 나라에서 학교에 다닌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6-1. 있다면 어느 나라였나요? (            )
7. 북한에서 온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언제인가요?  
     (초등, 중, 고등) 학교, (            ) 학년
8. 북한에서 온 친구 중 친하게 지낸 친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            )명,  
     이 친구들은 언제부터 친구인가요? (초등, 중, 고등)

1. 새터민친구와 만나는(만남) 경험은 어떠한가(어떠했는가)?
  - 1-1. 새터민친구를 만난 때는 언제인가?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 1-2. 새터민친구들을 만나기전에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새터민친구들과 만나면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상은 달라졌는가?
  - 1-4. 새터민친구들과 만나면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있다면), 무엇인가? 어려운 점이 극복되었다면 어떤 계기로 극복이 되었는가? 극복된 후,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 1-5. 새터민친구들과의 만남이 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1-6. 새터민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있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가?  
(앞으로 새터민친구들이 어떤 도움을 준다면 적응에 도움이 될까요?)
  - 1-7. 새터민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된 점은 무엇입니까? 새터민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1-8. 새터민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1-9. 새터민친구들중에 가장 친한 친구와 친해진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 친구와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것 때문이었나요?
2.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 2-1. 새터민 친구가 한국학교나 한국에 적응하는데 있어 또래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2-2. 새터민 친구를 도울 또래상담자의 주요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예. 새터민 청소년, 남한청소년 등)
  - 2-3.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탈북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친구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 [부록 4]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전)

###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이나 좋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결과는 보다 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1. 여러분은 북한이탈주민(또는 탈북청소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좋아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좋아한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여러분이 평소에 북한이탈주민(또는 탈북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체크해 주십시오.

No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느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혐오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불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불쌍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6	정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7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8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존경할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좋다	①	②	③	④	⑤
12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친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호기심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여러분과 북한이탈주민(또는 탈북청소년)이 일생생활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세요.

No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내가 속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웃하여 살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No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자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 할 때 늘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배우는 것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할 때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No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부탁을 받으면 나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이 똑같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동등하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와 다른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상관없이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성적 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종교적 신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사람들의 다른 성적 취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호 성명 \_\_\_\_\_ 만 \_\_\_\_\_ 세

↑ ↑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

## [부록 5]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사후)

###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이나 좋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결과는 보다 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1. 여러분은 북한이탈주민(또는 탈북청소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좋아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좋아한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여러분이 평소에 북한이탈주민(또는 탈북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체크해 주십시오.

No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느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혐오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불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불쌍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6	정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7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8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존경할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좋다	①	②	③	④	⑤
12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친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호기심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여러분과 북한이탈주민(또는 탈북청소년)이 일생생활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세요.

No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내가 속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웃하여 살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No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자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 할 때 늘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배우는 것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할 때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No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부탁을 받으면 나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이 똑같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동등하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와 다른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상관없이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성적 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종교적 신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사람들의 다른 성적 취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 평가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참여했던

탈북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이나 좋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 아래의 문항에 솔직한 여러분의 의견을 체크해주세요.

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나요?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나요?	①	②	③	④	⑤
5. 프로그램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6. 프로그램이 다른 또래상담자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7.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①	②	③	④	⑤

2. 각 회기의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체크해주세요.

프로그램 명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회기평가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들어가기	①	②	③	④	⑤	
1회기 낯섬 하나	①	②	③	④	⑤	
2회기 낯섬 둘	①	②	③	④	⑤	
3회기 만남	①	②	③	④	⑤	
4회기 성장	①	②	③	④	⑤	

3.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나요?

매우 좋았다	좋았다	보통	나빴다	매우 나빴다
⑤	④	③	②	①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호 성명 \_\_\_\_\_ 만 \_\_\_\_\_ 세

↑ ↑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



## Abstract

---

### The Development of the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for North Korean Youth

Recently,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ing in South Korea has rapidly increased and in 2016, reached close to 30,000. With growing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moving to South Korea, the portion of North Korean youth refugees also increase accordingly. Unfortunately, the North Korean youths experience great psychosocial problems adapting to a new society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y have a difficult time adapting to South Korean schools. Numerous preceding studies have shown that North Korean youths' school adaptation has a correlation with their forming a stabl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n youth. Thu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ogram training peer supporters to be a critical supporter in these youths' school adaptation. By developing such a program, we intend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empathy, and multicultural competency so North Korean youth experience a positive contact with South Korean youth that helps these youth to successfully accommodate to South Korean school setting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rogram included following steps. Firstly, we established goals of the program, reviewed preceding studies about North Korean youths' school maladjustment and peer counseling programs, and performed depth interviews and focused-group interviews with North and South Korean youths, and their teachers.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grounded theory and CQR. Secondly, the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results. It focuses on decreasing stereotypes and prejudice against each other and thus understanding each other. The program is divided into four parts. Lastly, the program was test-operated in three schools(one middle school and two high schools) to 51 peer supporters(25 students in experimental group, and 26 students in control group) and its effectiveness was verified. Detailed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body of the book.